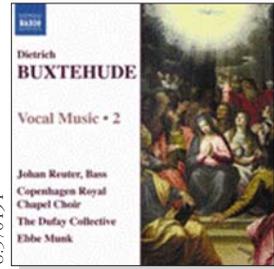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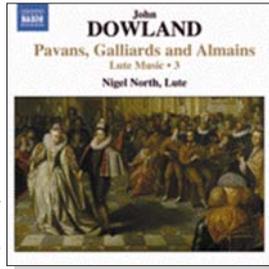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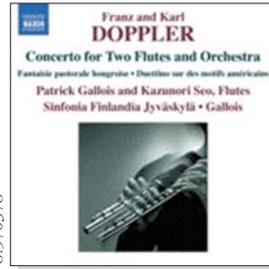
8.570210
J.S. 바흐 :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BWV1027-29 외
미코 페르클라(비올라 다 감바)
아도 하키넨(하프시코드)



8.570494
북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2
요한 로이터(베이스)
코펜하겐 로얄 채플 콰이어
뒤파이 콜렉티브
에베 몽크



8.570449
다울랜드: 류트작품집 Vol. 3
- 파반, 갈리아드, 올마인
나이젤 노스(류트)



8.570378
F 도플러 & K 도플러: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패트릭 갈로와 &
카조노리 세오(플루트)
신포니아 핀란드야



8.570382
D 스카를라티:
스타바트 마테르,
테 데움, 마니피카트 외
이모달 바흐 앙상블
모르텐 슬트-엔센



8.57372
토마스:
하프를 위한 작품집
립망 하프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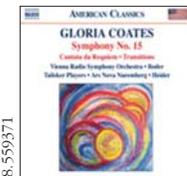
8.570279
치마로사:
시곡집 Vol.2
토론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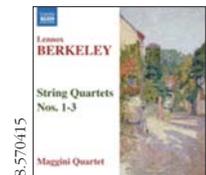
8.575706
스트라빈스카: 카드놀이, 발레장면, 댄스 콘체르탄테 외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세인트 루크 체임버
로버트 크래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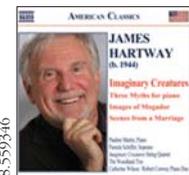
8.570987
아베:
교향곡 1번, 신포니아타,
디베르티멘토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8.559371
코츠: 교향곡 15번,
칸타타 4 레퀴엠, 트랜지션
빈 방송교향악단
미하엘 보더, 테리 덴스프라노
탈리스크 플레이어 외



8.570415
버클리:
현악사중주 1-3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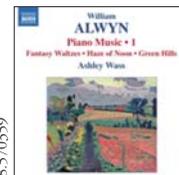
8.570546
하트웨이:
상상의 창조물, 3개의
신화, 결혼장면 외
이매지너리 크레처 현악사
중주단, 우드랜드 트리오 외



8.570538
장엄한 여행 -
유포니움을 위한 작품들
아담 프레이(유포니움)
뉴질랜드 심포니
브루스 행언



8.570215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4
- 7개의 체코 춤곡 외
조르조 쿠를(피아노)



8.570359
올윈:
피아노작품집 Vol.1
- 판타지 왈츠, 팬시프리 외
애슐리 와스(피아노)



8.570250
라우로:
기타작품집 Vol.2
- 기타 소나타 외
빅토르 빌라당고스(기타)



8.570451
파슨스: 종교합창곡
(마니피카트, 대전례, 아
베마리아 외)
보체스 칸타빌레스
바니비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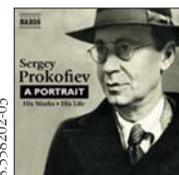
8.570409
차이코프스키:
가곡집 Vol.4
류바 카자르노스카야(소프라노)
류바 오르페노바(피아노)



8.660220-21
로시니: 이집트의 모세
(1819년 나폴리 버전)
로렌초 레가초 외
뷔템베르크 필하모닉
안토니오 폴리야니



8.576683-4
시네마 클래식 2007



8.558202-03
Sergey Prokofiev
- A Portrait
various artists



8.111097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 Vol.6
브람스: 집시의 노래 외,
슈베르트, 슈만, 뒤파르크,
R 슈트라우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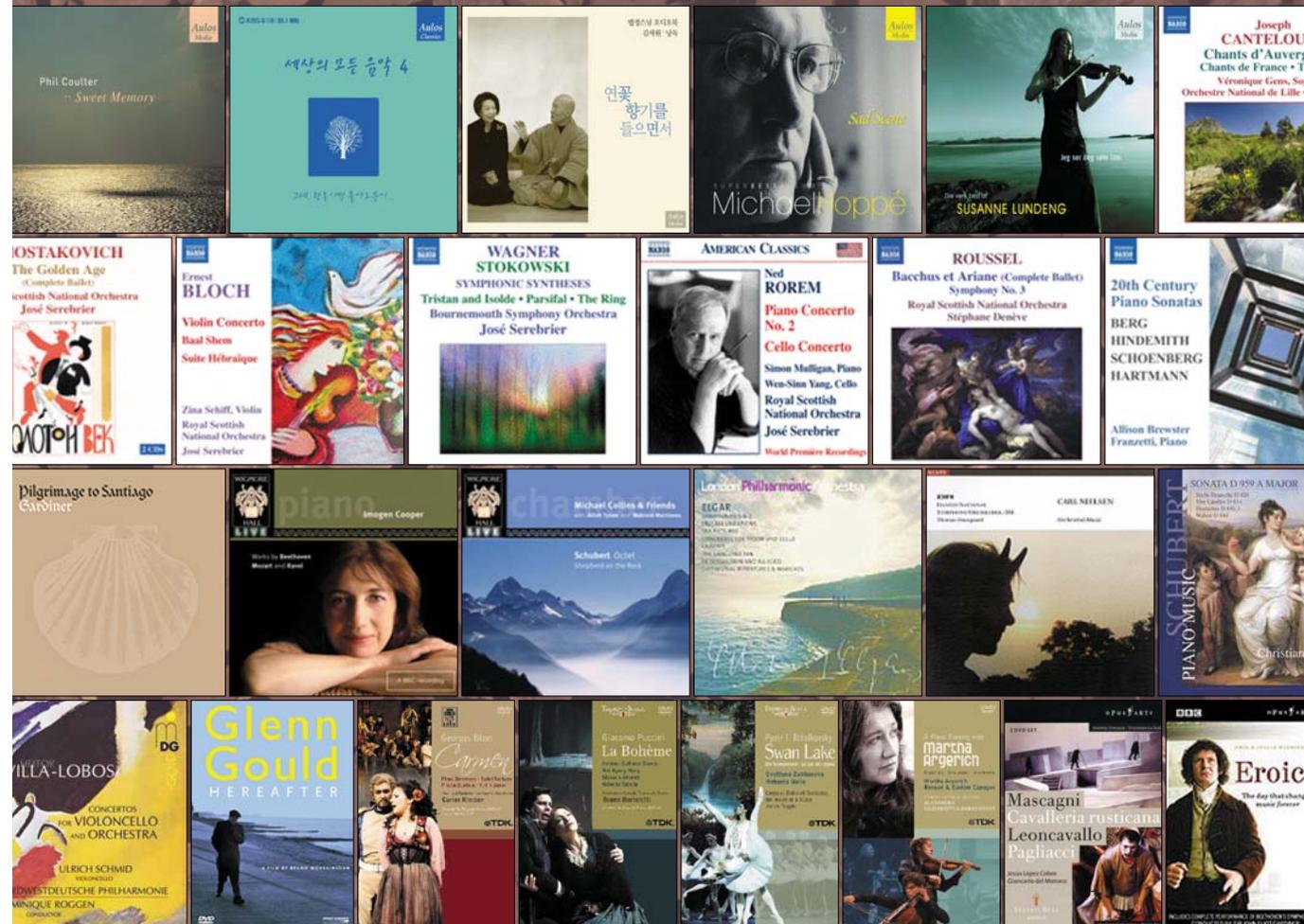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제 29호 | January 2008

The Best Albums of the 2007

올해의 주요 음반들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25주년 기념 음반



AMC2-087

1 CD |
평화와 휴식의 음악

우리에게 친숙한 구노의 아베 마리아,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로부터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1악장,
루빈스타인의 멜로디 등
보석같은 명곡들, 그리고 아일랜드 민요
'살리 가든 아래에서', 미겔 요벳의
'아멜리아 유서' 등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펼쳐 놓았습니다.

1 CD 2 | 특별한 선물
기도문 낭송집 '누군가를 위한 기도'

<당신의 밤과 음악>의 오랜 진행자이자,
FM 클래식 프로그램의 간판 아나운서인
이미선씨의 기도문들도 담았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음성이 고요한 밤의
평화를 안겨드립니다. 인디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어느 수녀의 기도 등
종교를 초월한 세계 유명인들이 남긴
사랑과 평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10편의 기도문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사랑의 꿈을,
힘든 일상으로 지쳐있는 당신에게 위로의 손길을....
25년간 한결같이 당신의 밤을 지켜온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
그동안 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마음을 담아 25주년 기념 음반 Prayer ;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밤에 스며드는 영원의 시간...

자꾸 발돋움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기어 다니던 시절을 지나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이 편해질 즈음부터는 늘,
저 너머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자꾸 발돋움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넘겨다본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무엇을 찾고 싶었던 것일까... 가끔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젠 굳이 발돋움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키가 자랐고,
그 키가 자라는 동안 가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라고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들.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 여러분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1982년 11월 8일, 당신의 밤과 음악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건넨 날입니다.
그로부터 스물다섯 해.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보내준 따뜻한 격려 덕분에 당신의 밤과 음악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루 스물 네 시간 가운데 한때는 한 시간, 그리고 지금은 두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뚝뚝새김처럼 도드라지는 순간이기보다
오목새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드는 영원의 시간이었으면 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이 25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 음악들이
그리움에 잠들지 못한 여러분의 이마 위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터내는 당신의 어깨 위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 위에
어머니의 따뜻한 약손처럼 살며시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번 앨범에는 이미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담은 세상의 여러 기도문들이 담겼습니다.
두 손을 포개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바치는 기도...
무언가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전하는 기도는 종교가 이 땅에 자리 잡기 이전부터
인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른 10편의 기도문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으로
오래 말린 딸나무, 오래 묵어 농익은 포도주, 믿을 수 있는 옛 친구,
읽을 만한 원로작가의 글,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스물다섯... 시간의 나이테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온 당신의 밤과 음악이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옛 친구로 오래도록 남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곁에 밤이 내릴 때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늘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제작진 일동



프로듀서 이 연 희

자신의 별 B612를 떠난 어린왕자는
다섯 번째 별에서 가로등과 점등수를 만납니다.
점등수를 만난 어린 왕자는
그가 아주 아름다운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한 개를,
혹은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그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라구요...
기쁨 제가 하는 일이 그 점등수가 하는 일과 닮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른 음악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 한 개를,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기를.
[당신의 밤과 음악]을 함께 하는 동안,
음악이 밤공기를 타고 날아가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며시 스며들기를.
그리고 음악이 끝날 즈음 잠 못 이루고 번민하던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곡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했던 음악들 가운데
제가 위로가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들을 골라 이번 앨범에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꺼내들을 수 있는 이 음악들이
고된 하루의 끝자락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어두운 밤길을 환히 비추는 따스한 가로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며 꿈꾸는 사이에도
두 손 모아 깊어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끝내 멈추지 않는 영혼들이
아름다운 음악 안에 평화로이 깃들었던 술한 밤들을 기억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던 그 밤의 시간들은
니를 돌아보고 동시에 주변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산 테레사 수녀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권유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써 시작하고 기도로써 마무리하십시오.
하느님께 어린이와 같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빛이 푸른 것은 파이란 하늘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듯,
깊은 밤, 음악에 귀 기울이고 지난 하루와 새로운 하루를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어둠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마음으로 키운 기도의 나무가 맺은 열매들,
생명의 에너지와 평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진행 이 미 선 아나운서



Naxos

www.naxos.com



Naxos 8.557845
훔멜: 오베론의 마술 뿔피리, 변주곡, 런던 귀향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베 그로트
 고전/낭만 전환기에 활약했던 훔멜은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피아노 비르투오조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네 관현악곡은 모두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들로 솔리스트의 화려한 기교와 단정한 관현악 반주가 조화를 이룬 숨겨진 보석들이다.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에 기초한 환상곡인 '오베론의 마술 뿔피리'와 장대한 규모의 론도 작품인 '런던 귀향' 그리고 전형적인 고전풍 변주곡 두 편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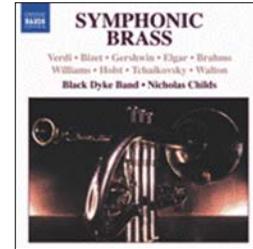
Naxos 8.570192
사라사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Vol.2
 티안와 앙(vn) 마르쿠스 하둘라(pf)
 파가니니 이후 가장 특출한 비르투오조로 군림했던 사라사테는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수많은 연주회용 소품들을 양산하였다. 본 음반에는 친숙한 로시니의 여러 선율들을 엮은 '로시나 오마주', 각각 플루토와 베르디 오페라에 기초한 '마르타 판타지'와 '운명의 힘 판타지' 등의 화려한 소품들을 담았다. 연주를 맡은 티안나 앙은 2004년 중국 최우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상을 수상했던 중국계의 기대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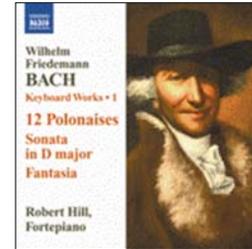
Naxos 8.570300-02
하이든: 오라토리오 <토비아의 귀향>
 로베르타 인베르니치 외/ 쥘렌 보컬 앙상블/ 카펠라 아우구스티나/ 안드레아스 슈페링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중 '천지창조'와 '사계'가 워낙 유명하지만, 그의 첫 오라토리오였던 '토비아의 귀향'은 최근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1775년에 초연된 이후 장대한 두 개의 합창곡을 덧 붙이는 개작 끝에 1784년에 재연된 작품으로, '천지창조'로 큰 호평을 받았던 안드레아스 슈페링이 다시금 뛰어난 자신의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Naxos 8.559286
듀크: 피아노협주곡, 첼로협주곡, 보스턴 추억
 스캇 던(pf)/ 샘 매길(vc)/ 러시안 필하모닉/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버논 듀크의 피아노협주곡은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요청으로 작곡이 시작되었으나,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비운의 작품이다. 1999년 본 음반에서 독주를 맡은 스캇 던이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보았다. 첼로협주곡은 낭만주의 전통에 기초한 작품으로, 프로코피에프와 쇼스타코비치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보스턴 추억'은 이 도시의 여러 장소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억을 표현한 피아노곡이다.



Naxos 8.570726
심포닉 브라스
 (개선행진곡, 카르멘 모음곡, 포기와 베스 외)
 블랙 다이크 밴드/ 니콜라스 차일드
 1816년 요크셔에서 창단된 유서 깊은 영국 브라스 밴드, 블랙 다이크가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하였다.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과 파란들, 홀스트의 목성, 거인의 포기과 베스, 월튼의 스피트파이어 푸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엘가의 남로드 등을 브라스 밴드의 씩씩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Naxos 8.557966
W. F. 바흐: 키보드 작품집 Vol.1
 로버트 힐(포르테 피아노)
 대 바흐의 장남이었던 빌헬름 프리데만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아버지의 큰 기대를 받았다. 성인이 된 이후 방탕한 사생활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실내악과 건반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최초의 출판작인 건반소나타 D장조와 조성 체계별로 작곡된 12곡의 폴로네이즈 등을 저명한 건반연주자 로버트 힐이 연주하는 포르테피아노를 통해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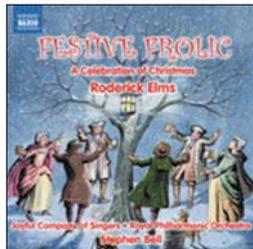
Naxos 8.570312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집 Vol.7
 홀리히 브라운(org)
 북독일의 위백을 근거지로 활약했던 북스테후데는 남독일의 파헬렐과 더불어 바로크 시대의 독일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던 양대 기둥이었다. 특히 그가 청년 바흐에 끼친 음악적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번 7집에는 독일 신고 코랄 선율에 기초한 전주곡들 외에도 당시 유행하던 춤곡의 선율에 기초한 2세트의 변주곡들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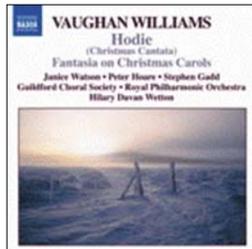
Naxos 8.557711
레스피기: 로시니아나, 브라질의 인상, 교회의 창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안 팔레타
 로마 삼부작 다음으로 유명한 레스피기의 관현악 작품 세 곡을 함께 수록한 음반. 교회 스테인드글라스의 4가지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한 드라마틱한 관현악곡인 '교회의 창', 브라질 여행을 통해 경험했던 미국의 향취를 음악에 담은 '브라질의 인상', 자국의 선배 작곡가 로시니의 선율을 토대로 자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맘껏 발휘한 걸작인 '로시니아나'를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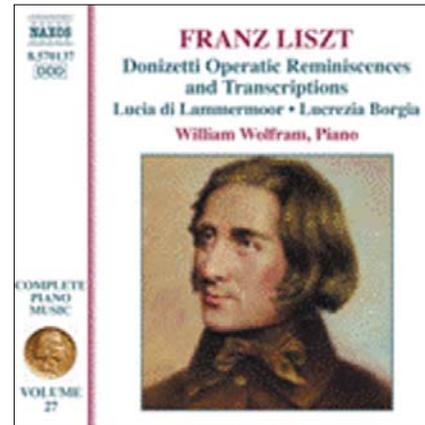
Naxos 8.555845
로드리고: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노래와 마드리갈
 라quel 로렌디오(sop)
 아스투리아스 심포니 막시미아노 발데스
 시작장애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작곡가로 성공했던 로드리고는 200여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다작가였다. 그가 남긴 성악곡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본 음반에 수록된 관현악 반주의 가곡들은 이 작곡가가 성악곡에도 뛰어난 감각을 가졌음을 반증한다. 스스로 가장 우수한 가곡으로 꼽았던 '신부의 노래'를 비롯하여 향토적인 정취와 현대적 세련미가 조화된 뛰어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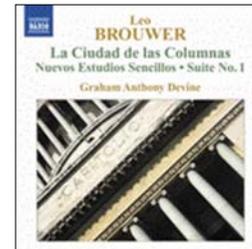
Naxos 8.570793
엘름스: Festive Frolic
 (크리스마스 축하 앨범)
 조이풀 컴퍼니 오브 싱어즈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티븐 벨
 영국 작곡가 로버릭 엘름스가 정성껏 준비한 이 크리스마스 음반에는 '루돌프 사슴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코벤트리 캐롤'과 같은 인기 전통 캐럴의 맛깔스런 편곡들에서부터 자신이 작곡한 오르간과 관현악을 위한 장엄한 모음곡 'Wassail down the win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리스마스 축제용 음악들을 수록하고 있다. 2007년 성탄절을 위한 최고의 음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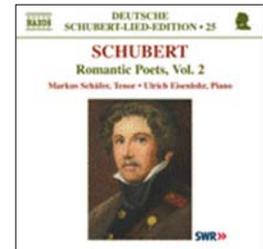
Naxos 8.570439
본윌리엄스: 크리스마스 캐럴 판타지, 칸타타 '호디에'
 길드포드 코랄 소사이어티 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힐러리 데이비슨 웨튼
 본윌리엄스의 칸타타 '호디에'는 밀튼, 하디, 허버트 등이 쓴 크리스마스에 관한 시들에 곡을 붙이고, 소년합창단이 유니즌으로 낭송하는 신약의 구절들을 적절히 삽입한 독특한 형식의 크리스마스용 음악이다. 성탄의 신비와 경건함이 작곡가 만년의 원숙한 작곡기법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영국의 전통 캐롤들의 선율을 차용한 '크리스마스 캐럴'에 의한 환상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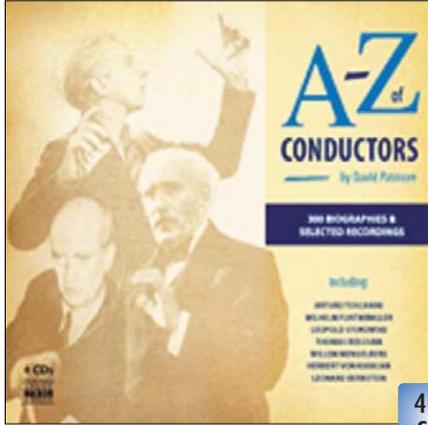
Naxos 8.570137
리스트: 도니제티 오페라 편곡들 (루치아, 라 파보리타 외)
 윌리엄 울프림(pf)
 본윌리엄스 전곡 시리즈의 27번째 음반. 도니제티의 오페라에서 모티브를 따온 쇼피스 5곡을 수록하였다. '루치아와 파리지니'에 의한 연주회용 왈츠, '루치아 보르지아'의 추억,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추억, '라 파보리타' 중 'sprito gentile'의 피아노편곡, '돔 세바스티엔' 중의 장송행진곡 등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입상자였던 미국 피아니스트 윌리엄 울프림의 연주로 담았다.



Naxos 8.570251
브루어: 기타 작품집 Vol.4
 그레이엄 안소니 데빈(guitar)
 2002년 알람브라 콩쿠르 우승자인 그레이엄 안소니 데빈이 브루어의 기타작품들에 도전하였다. 16세때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인 모음곡 1번 '안티쿠아'에서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리스트 피아노작품 전곡 시리즈의 27번째 음반. 도니제티의 오페라에서 모티브를 따온 쇼피스 5곡을 수록하였다. '루치아와 파리지니'에 의한 연주회용 왈츠, '루치아 보르지아'의 추억,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추억, '라 파보리타' 중 'sprito gentile'의 피아노편곡, '돔 세바스티엔' 중의 장송행진곡 등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입상자였던 미국 피아니스트 윌리엄 울프림의 연주로 담았다.



Naxos 8.557831
슈베르트: 낭만 시인들 시에 붙인 가곡들 Vol.2
 마르쿠스 새퍼(te)/ 울리히 아이젠로어(pf)
 베렌라이터의 새로운 슈베르트 에디션에 기초하여 진행중인 리트 시리즈의 25번째 음반.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에 기초한 가곡들을 담은 두번째 음반으로, 루케르, 괴르너, 킨트, 슐레겔 등의 시에 곡을 부친 19곡의 리트를 담았다. 자장가, 맹인소년, 사랑의 언어, 재회, 멀리 떨어진 연인을 위한 저녁노래 등의 감미로운 선율들을 종교음악과 리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독일의 신성 마르쿠스 새퍼의 음성으로 만난다.



4CD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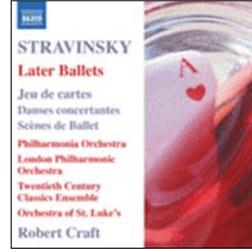
Naxos 8.558087-90
A-Z of Conductors (4CD + 1Book)
 Abbado에서 Zinman까지 20세기 음악계를 빛낸 유명 지휘자들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지휘자 대사전이 거장들의 레코딩과 더불어 여러분 곁을 찾아가입니다. 세필드대학 교수이자 음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패트모어가 정리한 977페이지 분량의 책자 속에는 레코딩과 지휘의 상관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서문과 더불어 300명 이상의 대표적인 지휘자들의 바이오그래피와 주요 경력, 그리고 그 지휘자를 대표하는 디스코그래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공되는 4장의 CD에는 토스카니니, 푸르트벵글러, 멩겔베르크, 발터, 스토코프스키, 니키쉬와 같은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48명의 역사적인 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소스 정규음반 4장 가격으로 이 특별한 책자 + 음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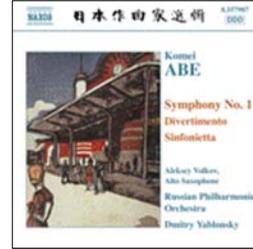
Naxos 8.570334
크라우스: 바이올린협주곡, 올림 피에, 아치레 중의 춤곡들
 타카코 니시자키(vn)/ 뉴질랜드 심포니/ 우베 그로트
 크라우스는 18세기의 가장 재능 넘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다. 파파 하이든은 '내가 만나본 두 음악천재는 모차르트와 크라우스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재능을 높이 샀다. 바이올린협주곡은 당시로는 보기드문 장대한 구성의 대작으로 본 음반을 통해 최초로 녹음되었다. 극부수음악 올림피에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오페라 아치레 중의 춤곡들에서도 이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이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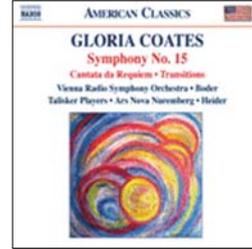
Naxos 8.660928
바르톡: 푸른 수염의 성
 안드레아 벨라트(ms)/ 구스타브 벨라첵(bass)/ 몬머스 심포니/ 마린 알습
 유럽 전통괴담에 기초한 오페라 '푸른 수염 영주의 성'은 바르톡의 유일한 오페라이자, 그가 남긴 가장 대편성의 작품이다. 단 두 사람이 등장하는 단순한 플롯의 작품이지만, 바르톡이 대편성 관현악을 통해 그려낸 음악은 대단히 강렬한 색채와 목직한 파워를 보여준다. 나소스가 자랑하는 여성 마에스트로 마린 알습의 최신작으로 헝가리를 대표하는 두 가수의 뛰어난 가창이 작품의 진가를 심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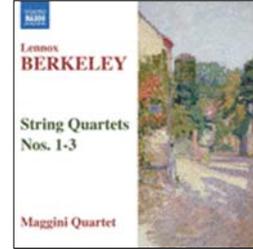
Naxos 8.557506
스트라빈스키: 카드놀이, 발레장면, 댄스 콘체르탄테 외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세인트 루크 챔버/ 로버트 크래프트
 로버트 크래프트의 스트라빈스키 시리즈 9번째 음반. 조지 발란신의 위촉으로 작곡된 '카드놀이'는 선율, 리듬, 화성에 대한 작곡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총망라된 발레작품이다. 할리우드 시절 작품인 '댄스 콘체르탄테'는 연인들의 아름다운 파도위를 담고 있는 작곡가의 유일한 작품. 크래프트 자신이 초연했던 두 가수의 뛰어난 가창이 작품의 진가를 심분 드러낸다.



Naxos 8.557987
아베: 교향곡 1번, 신포니에타, 디베르티멘토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코메이 아베(1911-2006)는 1930년대 동경음대가 배출한 일군의 주요 작곡가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작곡가 자신의 표현인 '중기기관차와도 같은 리듬 오스티나토'로 대표된다. 1957년 작품인 교향곡 1번은 작곡가의 이러한 역동적인 음악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알토색소폰의 농염한 음색을 잘 살린 디베르티멘토, 각종 타변주곡과 생기로 가득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카프리치오 등을 수록.



Naxos 8.559371
코츠: 교향곡 15번, 칸타타 다 레퀴엠, 트랜지션
 빈 방송교향악단/ 미하엘 보더/ 테리 던(소프라노)/ 탈리스크 플레이어 외
 글로리아 코우츠(1938년생)는 교향곡과 같은 전통적인 음악의 틀 속에서 독창적인 소리의 세계를 구현해온 작곡가다. '모차르트 오마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 15번은 작곡가의 특징과도 초현실적인 음향으로 가득 채워진 작품. 2차대전을 배경으로한 칸타타 다 레퀴엠은 이에 비해 한결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성악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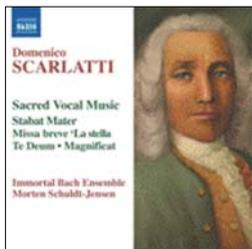


Naxos 8.570415
버클리: 현악사중주 1-3번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영국 실내악의 스페셜리스트, 마기니 퀴텟의 최신포. 레녹스 버클리는 스트라빈스키, 풀랑 등과 교분을 나누었던 영국 작곡가다. 초기에는 신낭만주의 성향의 음악을 작곡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음열주의 쪽으로 경도되어갔다. 현악사중주 1번은 스트라빈스키와 바르톡을 연상케하는 활기찬 작품. 2번은 명확한 악곡구조와 감성적인 깊이가 적절히 어우러진 수작이며, 3번은 작곡가의 가장 뛰어난 느린 악장을 담고 있다.



3CD SET

Naxos 8.660216-17
J.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아부카' (사과 축제)
 여러 가수들/ 유로피언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폴락
 오페레타 《Jabuka》(사과축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완성한 14번째 무대용 음악이다. 세르비아의 라비키에 펼쳐지는 사과축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젊은 남녀, 미르코와 바실 사이의 사랑이야기를 슈트라우스 특유의 화려하고도 흥겨운 선율로 표현한 작품. 이 음반이 이 작품 최초의 전곡 녹음이다. 이 오페레타에서 발췌한 춤곡 편곡이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Naxos 8.570382
D 스카를라티: 스타바트 마테르, 테 데움, 마니피카트 외
 이모탈 바흐 앙상블/ 모르텐 슐트-엔센
 도메니코 스카를라티는 건반음악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다수의 뛰어난 종교음악들도 남겼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타바트 마테르'를 비롯하여 이중합창과 통주저음을 위한 미사 '라 스텔라'와 '테 데움', 복고풍 폴리포니 작품인 '마니피카트' 등 그의 대표적인 종교음악들을 엄선하였다. 이모탈 바흐 앙상블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캄머콰이어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단체로 최고의 보컬앙상블을 들려준다.



Naxos 8.570372
토마스: 하프를 위한作品集
 립망 하프 듀오
 존 토마스는 웨일즈 수석음악가의 칭호와 빅토리아여왕의 공식 하피스트로 임명되었을 정도로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하프연주자였다. 자신의 고향 웨일즈의 민요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선율의 하프 작품들을 다수 남겼는데, 그 대표작들이 이 음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카라얀 재임시 베를린 필 단원을 역임했던 세바스티앵 립망과 그의 부인 사요로 구성된 립망 하프 듀오가 하프의 독특한 매력을 가득 안겨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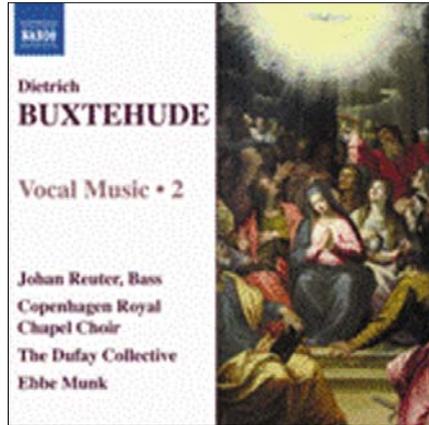
Naxos 8.570279
치마로사: 서곡집 Vol.2
 토론토 챔버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치마로사는 18세기 후반기 남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다. 65편에 달하는 오페라와 함께 상당량의 종교합창곡을 남겼으며, 기악곡 쪽에서 매력적인 협주곡들을 다수 남겼다. 이번 두번째 서곡집에는 '오레스테', '인도의 알렉산더', '아르타세르세', '자니나와 베르나르도네' 등등 작곡가의 재기발랄한 음악적 재능과 탁월한 선율감각이 물씬 배어나오는 9편의 서곡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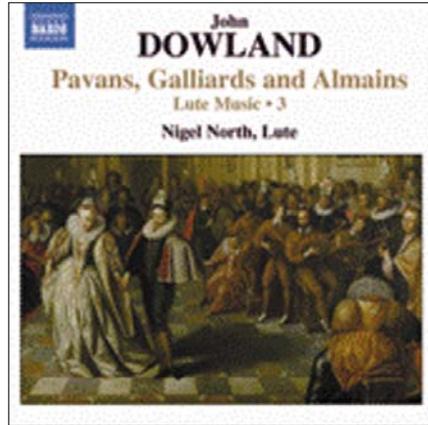
Naxos 8.557757
블로흐: 바이올린협주곡, 모음곡(발췌), 히브리 모음곡
 치나 슈프(vn)/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호세 세레브리에르
 블로흐는 작곡가에 앞서 이자이를 사사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지망생이기도 했다. 그의 바이올린협주곡은 이러한 자신의 꿈을 담아내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요 모티브는 뉴멕시코를 여행하던 동안 경험했던 인디언들의 노래에서 따온 것이다. 자신의 유태적 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관현악 삼부작인 '발췌'는 작곡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걸작으로 특히 '니건'은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사랑받았던 명곡이다.



Naxos 8.570210
JS 바흐 :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BWV1027-29 외
 미코 페르콜라(비올라 다 감바) / 아포 하키넨(하프시코드)
 괴텐의 궁정에는 당대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다수 포진해있었다. 바흐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기악걸작들을 양산할 수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비올라의 대가 아벨이었고, 바흐는 그를 위해 세 곡의 소나타를 작곡했다. 빌란트 카위엔의 제자이자 판타즘의 멤버였던 미코 페르콜라가 이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아울러 오르간을 위한 트리오 두 곡 역시도 비올라 다 감바와 하프시코드의 이중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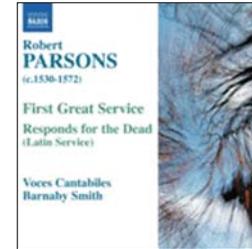
Naxos 8.570494
북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2
 요한 로이터(베이스)/ 코펜하겐 로얄 채플 콰이어, 뮌헨 필하모닉/ 에베 뭉크
 북스테후데의 서거 300주기를 마무리하는 값진 음반. 작곡가 생전에 가장 널리 연주되었던 걸작 칸타타 'Alles, was ihr tut' BuxWV4를 비롯하여, 베이스 솔로를 위한 드라마틱한 종교 콘체르토 'Fürwahr, er trug...', 아가자기한 매력의 'Der Herr ist mir' 등을 수록하였다. 소년들의 맑고 투명한 음성이 돋보이는 코펜하겐 로얄 채플 콰이어의 합창이 독일 바로크 종교음악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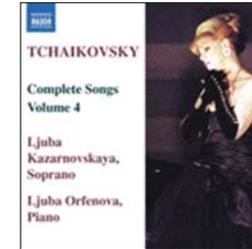
Naxos 8.570449
다울랜드: 류트작품집 Vol. 3 - 파반, 갈리아드, 올마인 나이젤 노스(류트)
 올해 국제 바흐 페스티벌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고음악애호가들과 더욱 친숙해진 최정상급 류트연주자 나이젤 노스가 녹음에서 선보이는 세번째 다울랜드 음반. 앞서 큰 호평을 얻었던 두 전작에 버금가는 걸출한 연주를 들려준다. 자신의 대명사와 같은 작품인 'Melancholy Galliard', 너무나 감상적인 'Pavana Doulant' 등 매일 눈물로 지새웠다는 다울랜드의 섬세한 감수성을 아름답게 재현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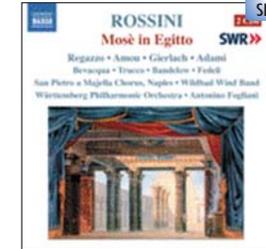
Naxos 8.570250
라우로: 기타작품집 Vol.2 - 기타 소나타 외 빅토르 빌라랑고스(기타)
 베네수엘라 출신의 기타 작곡가 안토니오 라우로(1917-1986)의 작품을 담은 두번째 음반. 오소독스한 양식을 갖춘 기타소나타, 존 두아르테에 대한 추모적인 모음곡과 같은 대곡들을 비롯하여 자국의 독특한 민속음악을 클래식한 형태로 승화시켰던 이 작곡가의 개성만점의 기타 소품들과 야상곡, 로만차와 같은 서정적인 작품들이 음반을 가득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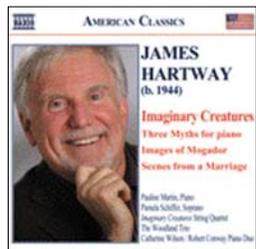
Naxos 8.570451
파슨스: 종교합창곡 (마니피카트, 대전례, 아베마리아 외) 보체스 칸타빌레스/ 바니비 스미스
 로버트 파슨스는 윌리엄 버드에 앞서 채플 로얄의 켈트맨에 임명되었던 인물로, 영국 르네상스음악 황금기의 한 축을 이루었던 작곡가다. 구교전례와 성공회전례 모두에 걸쳐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는 그의 첫 성공회 전례를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마니피카트, 아베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다성종교합창곡들이 수록되었다. 웨스트민스터성당합창단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체스 칸타빌레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70409
차이코프스키: 가곡집 Vol.4 류바 카자르노스카(소프라노)/ 류바 오르페노바(피아노)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은 작곡가의 다른 장르의 작품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는 100편이 넘는 가곡들을 작곡했는데, 여러 오페라를 통해 발표되었던 성악곡에 대한 재능이 가곡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음을 목격하게 된다. 앞서 세 장의 음반으로 차이코프스키 가곡에 관한 최고의 가수로 등극한 러시아의 소프라노 류바 카차르노브스카야가 이번 신보에서도 특별 없이 표정 풍부한 노래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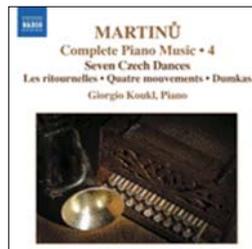
Naxos 8.660220-21
로시니: 이집트의 모세 (1819년 나폴리 버전) 로렌초 레가초 외/ 뷔템베르크 필하모닉/ 안토니오 풀리아니
 로시니의 '이집트의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이야기에 파라오의 아들 오시리데와 유대소녀 엘치아의 사랑이야기를 접목한 3막 오페라다. 후일 파리에 정착한 이후 불어 대본과 보다 확대된 규모인 '모세와 파라오'로 개작하기도 했다. 3막에 등장하는 기동장면은 파가니니의 유명한 '모세 변주곡'의 바로 그 선율이다. 2006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으로 세계적인 베이스 로렌초 레가초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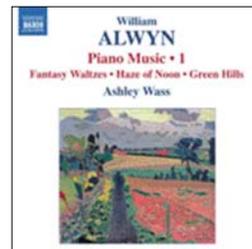
Naxos 8.559346
하트웨이: 상상의 창조물, 3개의 신화, 결혼장면 외 이미지너리 크레처 현악사중주단, 우드랜드 트리오 외
 미시간의 웨인 주립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제임스 하트웨이의 실내악 작품들을 담은 음반. 미니멀한 특징을 보여주는 피아노작품 '3개의 신화', 현악사중주 반주의 색다른 성악곡인 '상상의 창조물', 플루트, 비올라, 하프의 독특한 편성으로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모가도르 이미지', 피아노연탄곡 '결혼의 장면들'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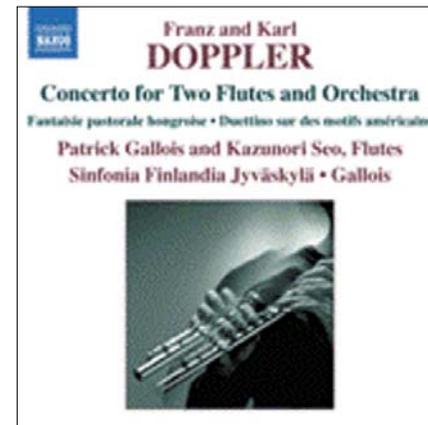
Naxos 8.570538
장엄한 여행 - 유포니움을 위한 작품들 아담 프레이(유포니움)/ 뉴질랜드 심포니/ 브루스 행인
 유포니움은 튜바의 축소형처럼 생긴 악기로 트럼본과 튜바의 중간 음역을 담당하는 금관악기. 일반 오케스트라 편성에 자주 쓰이는 악기는 아니지만, 브라스 밴드의 중저음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제주 국제관악제에도 참여했던 아담 프레이는 보기도 문 유포니움 솔리스트로 이 음반을 통해 이 악기의 부드럽고 중후한 매력을 유감없이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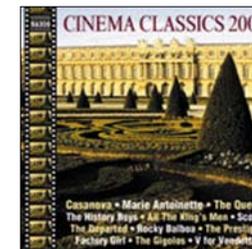
Naxos 8.570215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4 - 7개의 체코 춤곡 외 조르조 쿠클(피아노)
 나소스를 통해 진행중인 조르조 쿠클의 마르티누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그동안 한번도 녹음되지 못했던 9편을 비롯하여, 쉽게 접하기 힘든 희귀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담은 7곡의 폴카로 구성된 체코 춤곡을 비롯하여, 신고전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리투르넬레, 라마르세이유 테마에 의한 프렐류드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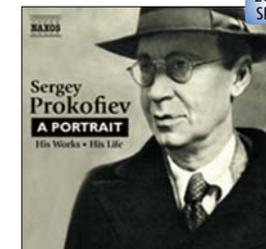
Naxos 8.570359
울윈: 피아노작품집 Vol.1 - 판타지 왈츠, 팬시프리 외 애슐리 와스(피아노)
 영국 작곡가 윌리엄 울윈은 스스로 탁월한 건반의 비르투오조였으며, 연주자로서의 경험과 기교적인 이해를 토대로 다수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남겼다. 음반의 중심 작품은 11개의 기교적인 소품들이 연결된 판타지 왈츠다. 제목 그대로 몽환적인 느낌으로 가득한 '오후의 아지랑이', 명쾌한 피아니즘이 돋보이는 소나타 알라 토카타 등을 영국의 기대주 애슐리 와스의 연주로 담았다.



Naxos 8.570378
F 도플러 & K 도플러: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패트릭 갈로와 & 카조노리 세오(플루트)/ 신포니아 핀란드아
 프란츠와 카를 도플러 형제는 모두 당대 최고의 플루트연주자로 명성을 얻었던 이름들이다. 많은 플루트연주자들의 인기 레퍼토리로 너무나 유명한 '헝가리 전원 환상곡', 귀에 익은 아리아들을 플루트의 사랑스런 음색으로 만나는 '리콜레토 환상곡', '성조기'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선율들을 재치있게 엮은 '아메리카 모티프의 듀엣티노',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등을 담은 플루트 애호가들 필청반.



Naxos 8.556834
시네마 클래식 2007
 최신 영화들에 삽입되었던 귀에 익은 클래식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그의 '아침기운'(스쿠프),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로키 발보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중 2악장(히스토리 보이즈), 라모의 카스트로와 플뤼 서곡(마리 앙투와넷), 베르디 레퀴엠 중 리베라메(더 퀸),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브이 포 벤데타), 드보르작의 달의 노래(디파티드), 쇼팽 나비 연습곡(프레스티지),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중 부레(카사노바),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 중 안단테(팩토리 걸) 등을 수록.



Naxos 8.558202-03
Sergey Prokofiev - A Portrait various artists
 쇼스타코비치와 더불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프로코피예프의 생애와 대표작을 이 음반 하나로 조망할 수 있다. 20트랙 이상의 작곡가의 대표적인 걸작을 간추렸으며, 저명한 음악 칼럼니스트 그레고리 하트의 1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에세이가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내지에는 작곡가와 관련된 진귀한 기록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2CD SET

Naxos 8.111272-73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1955년 레코딩)
안노티에타 스텔라, 주제페 디 스테파노, 티토 고피 외/ 라 스칼라/ 틀리오 세라핀

거장 틀리오 세라핀이 1955년 EMI에서 완성한 역사적인 '라 트라비아타' 전곡 녹음이 나소스 히스토리컬에서 복각되었다. 비올레타에 스텔라를 기용함으로써 칼라스와 세라핀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유명한 녹음이다. 스텔라의 뛰어난 활약은 세라핀의 안목이 역시 정확했음을 말해주며, 디 스테파노와 티토 고피의 절창 역시 이 음반의 가치를 드높인다.



Naxos 8.111265

슈만: 피아노협주곡, 카니발, R 슈트라우스: 부를레스케
클라우디오 아라우(pf)/ 디트로이트 심포니 외/ 카를 크뤼거 외
나소스 히스토리컬을 통해 선보이는 아라우의 세 번째 음반. 짧은 기간 동안 음반으로 출시되었던 40년대의 귀한 음원 두 종을 수록하였다. R 슈트라우스의 부를레스케는 데지레 드포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한 1946년의 음원이고, 슈만의 협주곡은 카를 크뤼거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와 협연한 1944년의 음원. 여기에 1939년에 녹음한 슈만의 카니발 전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8.111097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 Vol.6
브람스 : 집시의 노래 외, 슈베르트, 슈만, 뒤파르크, R 슈트라우스 외
로테 레만 리트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 발췌,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달에게, 음악에, 나이팅게일, 밤과 꿈, 마왕 등의 유명 독일 리트들과 더불어, 어빙 베를린의 God bless America,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슈만 트로이메라이의 선율을 보컬리트로 노래한 귀한 녹음 등을 만날 수 있다.



4 fo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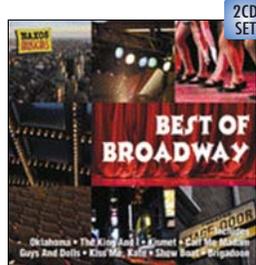
LPO-0099
런던 필하모닉 창립 75주년 기념 음반 VOL.3

클라우스 텐슈테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루치아 폼, 앤 머레이, 안소니 롤프존스, 르네 파페) 프란츠 벨저-뫼스트: 브루크너 <테 데움>, R 슈트라우스 <카프리지오> 발췌, 슈베르트 <스타바트 마테르> 외
쿠르트 마주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 5번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4번 (타티아나 모노가로바, 세르게이 라이퍼쿠스)
2008년 3월 내한공연이 예정되어있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립 75주년 기념 박스 세트. 세번째 박스에는 CD시대에 접어들어 이후 이 악단을 이끌었던 4명의 지휘자들의 연주를 담았다. 클라우스 텐슈테트(1983-90)의 베토벤 합창교향곡 1992년 실황은 거장이 이 악단과 남긴 가장 마지막 기록들 중 하나이며, 프란츠 벨저-뫼스트(1990-96)가 지휘한 브루크너의 테 데움과 슈베르트의 스타바트 마테르, 쿠르트 마주어(2000-07)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현 상임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4번이 수록되었다. 텐슈테트와 유롭스키의 음반은 최초로 정규 CD로 선보이는 음원들이다.



LPO-0030

브루크너: 교향곡 7번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4년 5월 10일 런던 로얄 페스티벌홀 콘서트 실황녹음. 라이브에서 특히 뜨겁게 연소하는 텐슈테트의 강력한 파워와 거대한 스케일의 연출을 브루크너의 이 위대한 교향곡에서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공식음반으로는 최초로 선보이는 텐슈테트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



2CD SET

Naxos 8.120873-74

The Best of Broadway
오를라호마, 왕과 나, 남태평양, 쇼 보트, 키스멧, 원더풀 타운, 키스 미 케이트 외

192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인기 뮤지컬들을 오리지널 캐스팅의 목소리로 만난다. 오를라호마, 왕과 나, 회전목마, 남태평양, 쇼 보트, 키스멧, 포기와 베스, 콜미 마담, 애니 갯 유어 갯, 신사는 미녀를 좋아해, 브리가든, 온더 타운, 원더풀 타운, 키스 미 케이트, 보이프렌드, 건스 앤 돌스 등에서 발췌한 추억의 인기곡들을 수록.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4 for 3

LPO-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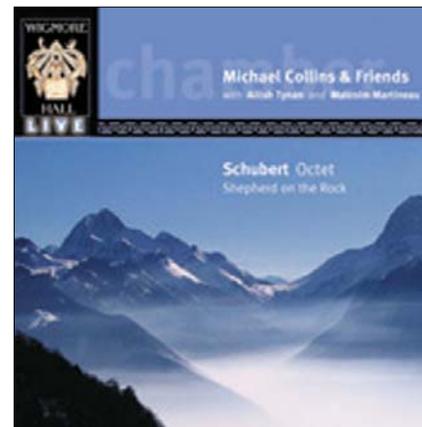
런던 필하모닉 창립 75주년 기념 음반 VOL.2
존 프리처드: 브리튼 <세레나데> & 바이올린 협주곡(안 파트리지, 로드리 프렌드)
게오르크 솔티: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수수께끼 변주곡, 브리튼 <Our Hunting Father> (히데 하퍼)
게오르크 솔티: 맥케이브 관현악협주곡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아놀드 필하모닉 협주곡, 맥케이브 <사할 윈도우>

2008년 3월 내한공연이 예정되어있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립 75주년 기념 박스 세트. 두번째 박스에는 20세기 중후반 이 단체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게끔 이끌었던 3명의 거장 지휘자들이 남긴 값진 음원들을 수록하였다. 존 프리처드 경(1962-66)은 연주한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독주 로드리 프렌드)과 세레나데(테너 안 파트리지), 게오르크 솔티 경(1979-83)은 차이코프스키 비창교향곡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베르나르드 하이팅크(1967-79)는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과 서주와 알레그로를 들려준다. 마지막 음반에는 솔티와 하이팅크가 분담한 맥케이브와 아놀드의 관현악곡들을 담았다. 특히 솔티의 비창교향곡과 불새는 최초로 정규 CD로 발매되는 음원들이다.



Wigmore Hall Liv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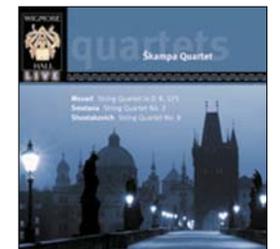
www.wigmore-hall.org.uk



WHLive 0019

슈베르트: 바위 위의 목동 & 8중주 D803

마이클 콜린스(c)와 친구들(이사벨 판 콜렌, 다니엘 윌러-쇼트, 아일랜드 타이난 외)
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클라리넷주자 마이클 콜린스와 그의 음악 동료들의 근사한 슈베르트 실내악 축제가 펼쳐졌다. 소프라노 아일랜드 타이난과 피아니스트 말콤 마르티누가 콜린스와 더불어 '바위 위의 목동'을 연주하였고, 8중주에서는 정상급 솔리스트들인 이사벨레 판 콜렌, 다니엘 윌러-쇼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 단원인 페터 리켈바우어, 필하모니아의 단원인 로빈 오닐, 로얄 필의 마틴 오웬 등이 함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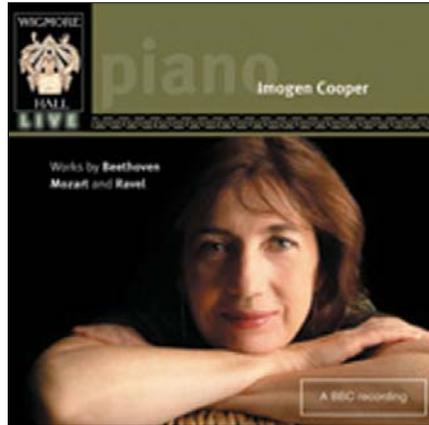


WHLive 0019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8번, 스메타나: 현악사중주 2번 외
슈카파 현악사중주단

스메타나 사중주단의 직계후계자들인 슈카파 사중주단의 2006년 11월 23일 공연실황. 모차르트 사중주 K575에서는 단정한 조형력이, 스메타나 2번에서는 자국의 향토적인 색채가, 쇼스타코비치 8번에서는 이들의 다이내믹 파워가 빛을 발한다. "슈카파의 다이내믹 어프로치는 숨막힐 정도다. 이들의 심원한 음악적 지성은 연주의 아름다움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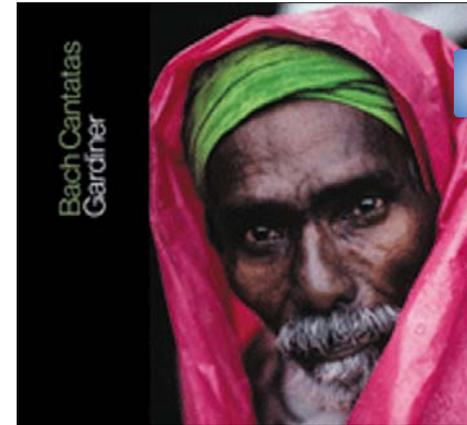
- The Independent -



WHLive 0018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8번,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310 외 이모겐 쿠퍼(pf)
 이모겐 쿠퍼의 2007년 2월 27일 실황. 브렌델, 데무스, 바두라스코다를 사사했던 그는 특히 독일 피아노레퍼토리의 해석에 큰 두각을 드러내어 왔다.
 “모든 작품의 모든 부분에서 깨끗한 음색과 교묘하게 처리된 리듬이 자리잡았다. 이 리사이들은 쿠퍼의 뛰어난 음악적 이해력과 차별적인 취향을 확연히 증명해준다.” - The Guardian -



WHLive 0020
슈베르트, 볼프, 드뷔시, 뒤파르크, 워록의 가곡들 크리스토퍼 몰트맨(bar)/ 줄리어스 드레이크(pf)
 영국이 자랑하는 신예 바리톤 크리스토퍼 몰트맨의 2007년 6월 16일 리트 리사이틀. 슈베르트의 '방랑자', 볼프의 '정원사', '도보여행', 드뷔시의 '로망스', 뒤파르크의 '여행의 초대' 등의 유명가곡들을 그의 그윽한 중저음으로 만나게 된다.
 “반주자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탁월한 도움을 받은 몰트맨은 강렬한 집중력으로 뛰어난 리사이틀 무대를 완성하였다.” - The Guardian -



2CD SET

SDG134

바흐 칸타타 순례 Vol. 6
삼위일체축일 후 12번째 주일과 13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내 영혼이여 주를 찬양하라 BWV69a
 마음도 영혼도 여찌할 줄 몰라 BWV35
 군센 영광의 왕이신 주를 찬양하라 BWV137
 너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BWV77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BWV33
 너희는 스스로 그리스도에게서 이름을 받은 자이니라 BWV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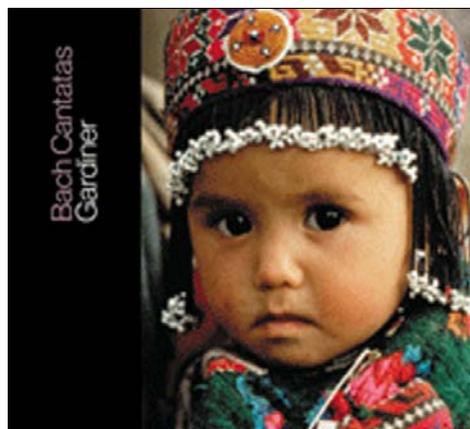
캐서린 푸지, 질리안 키스(sop)/ 로빈 타이슨, 나탈리 스티츠망(alt)/ 크리스토프 겐츠(te)/ 피터 하비, 조나선 브라운(bass)/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가디너 바흐 칸타타 시리즈의 13번째 음반으로 바흐가 5년동안 머물렀던 도시인 괴텐에서 펼쳐진 의미심장한 콘서트 실황이 수록되었다. 2000년 9월 10일 괴텐 야콥 교회와 같은 해 9월 17일 프랑크푸르트 삼왕교회에서의 실황을 2장의 시디에 나누어 담았다. 바흐의 칸타타 중 가장 웅대한 스케일의 작품들인 '내 영혼이여 주를 찬양하라' BWV69a와 '군센 영광의 왕이신 주를 찬양하라' BWV137, 그리고 '너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BWV77을 이 음반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



Soli Deo Gloria(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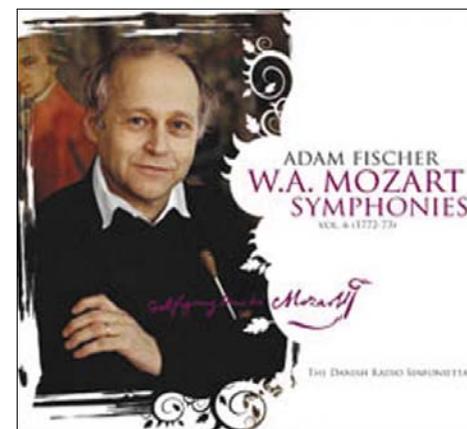
바흐 칸타타 순례 Vol.16
크리스마스 후 주일을 위한 칸타타
 믿음의 길을 걸으라 BWV152
 새로 태어난 아기 BWV122
 주를 찬양하라, 한해가 끝났도다 BWV28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BWV190 & BWV225

캐서린 푸지, 질리안 키스, 조안 런(sop)/ 다니엘 테일러(alt)/ 제임스 질크리스트(te)/ 피터 하비(bass)/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2000년 12월 31일 뉴욕 성 바돌로뮤 교회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는 그 해 펼쳐졌던 가디너의 바흐 순례의 해 행사의 마지막 콘서트에 해당한다. 콘서트는 복합창을 위한 바흐의 위대한 모테트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BWV225로 화려하게 시작되며, 전형적인 성탄 코랄 칸타타인 '새로 태어난 아기' BWV122, 루터의 테 데움 선율을 인용한 신년 칸타타인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BWV190를 거친 뒤, 이 장대한 순례의 해를 마무리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칸타타인 '주를 찬양하라. 한 해가 끝났다' BWV28로 대단원을 이룬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6,220541

모차르트: 교향곡 19-21, 26번 (Hybrid-SACD)
 아담 피셔
 덴마크 라디오 신포니에타

만하임 국립극장 음악감독시절, 시노폴리의 급서로 위기에 빠졌던 바이로이트의 반지 프로젝션을 훌륭히 대타로 치루어내었던 아담 피셔, 동생(이반 피셔)과 더불어 헝가리 음악계의 기대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하이든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던 소수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고전교향곡에 대한 그의 심미안이 모차르트가 16, 17세때 남긴 4편의 교향곡들에서도 다시금 빛을 발한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
MD&G
 www.md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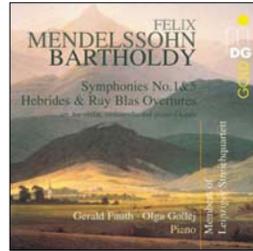
Special Box Sets 5 for 3

MDG 301 1483-2
카르텔리에리: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들
 디에터 클뢰커(Dieter Klöcker), 철키 필하모니 체임버, 콘소르티움 클라시콰 외
 비운의 고전시대 작곡가 카르텔리에리를 찬연히 부활시켰던 MDG의
 음반 5종이 스페셜 박스로 재발매되었다.
 수록곡 클라리넷 협주곡 1, 3번 / 두 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플루
 트협주곡 외/ 목관 오중주를 위한 파르티타 1-3번 / 클라리넷 사중주
 1,2,4번 / 클라리넷 사중주 3번, 사중주
**디베르티멘토 독일비평가협회상, 2000년 에코 클래식 프라이즈, 레퍼
 트와 추천음반, 피치카토 추천음반, 스테레오플레이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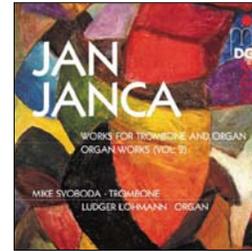


Special Box Sets 5 fo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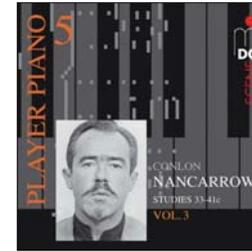
MDG 307 1484-2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현악 사중주 전곡
 크리스티안 월체(sop),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독일을 대표하는 저명한 실내악 단인 라이프치히 퀴텟이 연주한 신비악파의 세 거장들이 작곡한 현악사중주를 위한 작품 전곡을 스페셜 박스로 재발매하였다.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1897, 현악사중주 1번/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 4번/ 쇤베르크: 정화된 밤, 현악사중주 3번/ 베르크: 현악사중주, 서정모음곡, 베베른: 현악사중주를 위한 3개의 소품/ 베베른: 독일비평가협회상, 핑겐가이드***, 스트라드 추천음반, 포노포럼 만점, 클래식스튜디오 만점, 스케르 초 추천음반



MDG 307 1469-2
멘델스존: 교향곡 1,5번, 핑갈의 동굴, 루이 블라스(실내악 편곡) 제랄드 파우트 & 올라 콜레이(pf), 안드레아스 자이델(vn), 마티아스 모스도르프(vc)
 멘델스존의 교향곡 두 편(1,5번)과 연주회용 서곡 두 편(핑갈의 동굴, 루이블라스)의 실내악 편곡 저번.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베르크: 현악사중주 1897, 현악사중주 1번/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 4번/ 쇤베르크: 정화된 밤, 현악사중주 3번/ 베르크: 현악사중주, 서정모음곡, 베베른: 현악사중주를 위한 3개의 소품/ 베베른: 독일비평가협회상, 핑겐가이드***, 스트라드 추천음반, 포노포럼 만점, 클래식스튜디오 만점, 스케르 초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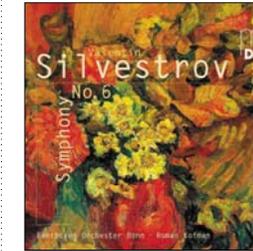
MDG 606 1462-2
얀카: 트럼본과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 오르간 독주곡들 마이클 스보보다(tb), 루저 로만(org)
 폴란드 출신의 안 얀카는 마르셀 뒤프레의 직계제자로, 고국 폴란드의 향토색과 자신의 깊은 가톨릭 신앙을 프랑스 근대 오르간 악파의 전통 속에 접목시킨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며 유럽 음악계의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바흐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0개의 코랄 프렐류드와 북고풍 작품인 로만틱 모음곡, 그리고 가장 장엄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악기들인 트럼본과 오르간의 색다른 조합을 위한 작품들을 수록.



MDG 645 1405-2
넌카로우: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Vol.3
 뵘젠드르프 그랜드 피아노 + 암 피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커니즘 에코 클래식 어워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클래식스튜디오 만점 등을 획득하며 승승장구 중인 넌카로우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시리즈의 세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본 음반은 두 대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4성부 카논 작품들을 수록한 것으로 고도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완성된 작곡가의 독특한 다성음 악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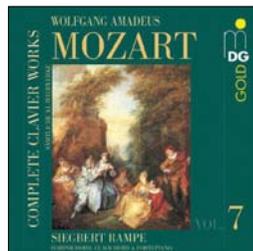
MDG 642 1479-2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4번 & 19번
 베르너 하스(pf)/ 슈투트가르트 방소교향악단 외/ 물리엔 바지치, 칼 뮐링거
 기제킹의 애제자였던 독일 피아니스트 베르너 하스는 세계적인 연주자로 도약하던 시점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연주자였다. 본 음반에는 생전에 그가 남긴 두 개의 뛰어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녹음이 수록되었다. 특히 칼 뮐링거의 슈투트가르트 체임버와 협연한 19번(K459)의 1965년 실황은 당시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절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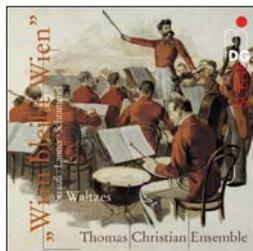
MDG 337 1478-2
 (Hybrid-SACD 937 1478-6)
실베스트로프: 교향곡 6번
 로만 코프만/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올해 75번째 생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세계적 작곡가 실베스트로프의 교향곡 6번을 동향의 가장 로만 코프만이 탁월하게 재해석하였다. 1995년에 완성된 이 교향곡은 로맨틱한 선율과 인상주의적 색채, 무조 풍의 패시지 등이 교묘하게 뒤엉키면서 작곡가 특유의 음향적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작곡가가 직접 녹음과정에 참여하였으며, MDG가 자랑하는 우수한 녹음이 작품의 위용을 한결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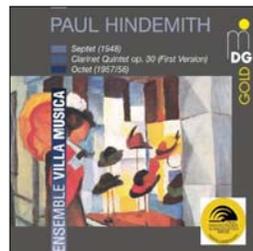
MDG 604 1465-2
메트너: 피아노작품집
 세베린 폰 에카르트슈타인(pf)
 2000년 리즈 콩쿠르 3위 입상자이자 2003년 에코 클래식 프라이즈 수상자인 에카르트슈타인이 메트너의 피아노 작품에 도전하였다. 메트너는 라흐마니노프, 스크랴빈과 더불어 세기전환기 러시아 피아노 음악을 대표하던 3대 거장의 한 사람이었다. 로맨틱한 감성이 농밀하게 배어 있는 그의 대표작 'Night Wind' 소나타와 비극적 소나타 Op.39-5를 비롯한 대표적인 피아노 명곡들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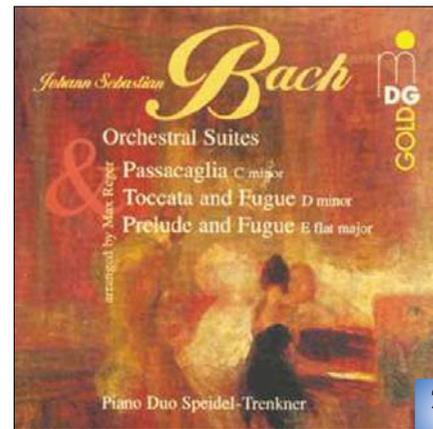
MDG 341 1307-2
모차르트: 건반작품전집 Vol. 7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시리즈 7번째 음반.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그리고 모차르트 당시인 1771년에 완성된 하프시코드를 동원하여 1766년의 초기작(두 개의 네덜란드 민요 변주곡 K24, 25)에서 1789년의 만년작(9개의 변주곡 K573)에 이르는 여정을 다루었다. 하프시코드의 청량한 음색으로 수놓은 두 개의 건반소나타(K281, 14)와 클라비코드의 아기자기한 매력에 돋보이는 초기 변주곡들도 각별하다.



MDG 603 1466-2
슈트라우스 패밀리, 란너, 슈라멜 (Wien bleibt Wien)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
 실내악을 만나는 아름다운 빈의 선율들. 빈 신년음악회의 화려한 무대를 통해 익숙해진 빈의 왈츠와 폴카들을 현악오중주 편성의 아기자기한 연주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즐거움이 각별하다. 빈 왈츠의 선구자들인 란너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대표곡들과 더불어 안넨 폴카, 피치카토 폴카 등의 익숙한 선율들, 그리고 빈 토박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음악인 슈라멜의 'Wien bleibt Wien'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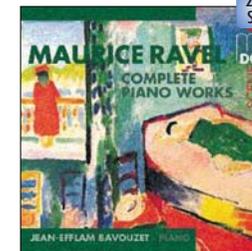


MDG 304 0447-2
힌데미트: 실내악작품집(7중주, 클라리넷 5중주, 8중주)
 앙상블 빌라 무지카
 앙상블 빌라 무지카의 힌데미트 실내악 시리즈 완결작. 1992년 처음 소개된 음반이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발매된 것으로 국내시장에는 최초로 수입되었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실내악 걸작인 클라리넷 오중주와 플루트, 일방적인 목관 오중주 편성에 베이스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추가한 7중주, 클라리넷, 호른, 바순에 바이올린과 두 대의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를 덧붙인 8중주를 수록. 독일 비평가협회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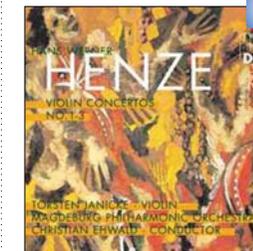
2CD SET

MDG 330 1006-2
바흐-레가: 관현악모음곡 전곡 (두 대의 피아노 편곡)
 존트라우트 슈피델 & 에벨린데 트렌크너(pfs)
 레가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전곡과 토카타와 푸가 BWV565, 전주곡과 푸가 BWV552, 파사칼리아 BWV582
 골드베르크 5점, 팜파르 Classical Hall of F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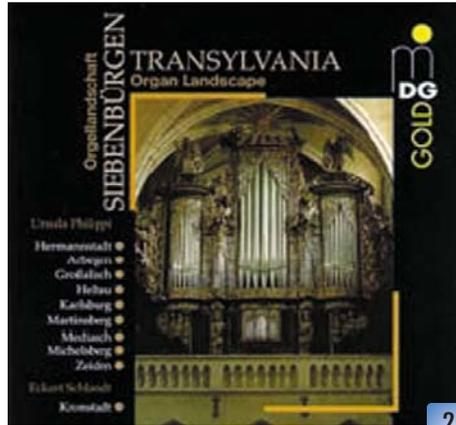
2CD SET

MDG 604 1190-2
라벨: 피아노작품 전집
 장 에플랑 바부제(pf)
 르 몽드 라 무지크 CHOC 디아파송 금상포노포럼 *****클래식스튜디오 10/10 Klassik.com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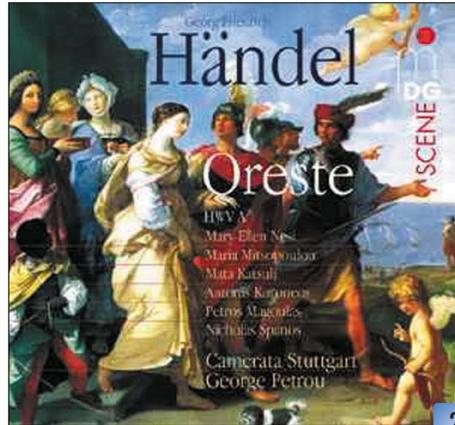
2CD SET

MDG 601 1242-2
헨체: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1-3번)
 토르스텐 야닉케(vn)/ 크리스티안 에발트/ 막데부르크 필하모닉 독일 비평가협회상스테레오플레이 Klangtipp 피치카토 Supers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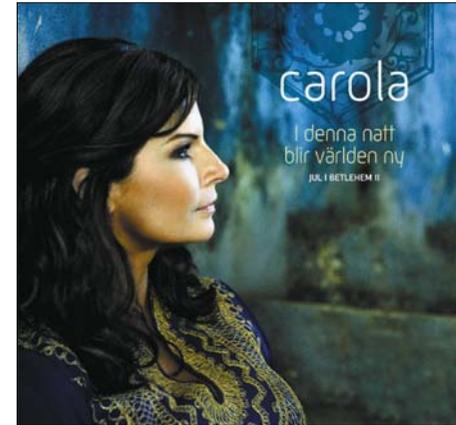
2CD SET

319 0414-2
오르간 랜드스케이프 트란실바니아
 우르술라 필립피 & 에카르트 술란트 (org)
 드라마틱한 전설의 무대인 동유럽 트란실바니아 일대의 역사적인 오르간들의 고색창연한 사운드로 이 지역 출신 작곡가들인 폴 리히터, 루돌프 라벨, 길로라모 디루타, 한스 페터 튀르크 등의 작품을 담은 특별한 음반. 독일 비평가협회사상



2CD SET

609 1273-2
헨델: 오레스테
 여러 가수들/ 게오르게 페트로우/ 카메라타 슈투트가르트
 스테레오플레이 추천음반 '오레스테'는 1734년에 초연되었던 헨델의 파스티치오다른 오페라의 선율들을 조합하여 만든 오페라오페라다. 그리스 출신의 젊은 솔리스트들의 놀라운 기량이 슈투트가르트 카메라타의 생기로운 반주와 좋은 궁합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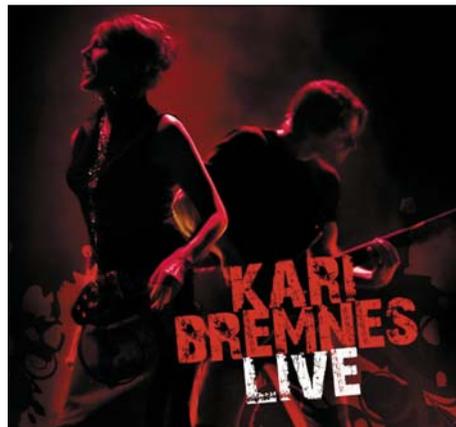
FXCD 326
카롤라: 오늘밤 세상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의 교회에서 친구 크리스마스 음악을 노래해왔던 카롤라가 예수 탄생지에서 그 분위기와 음성을 전하는 앨범이다. 이번 앨범에는 노르웨이 음악가뿐만 아니라 스웨덴 중동 아티스트들도 함께 했다. 키보드, 하프, 전자 베이스, 타르, 비올라, 나기라, 더블 베이스, 첼로,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이 절묘하게 화합해서 들려주는 2007년 말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앨범이다. KKV 프로듀서 에릭 힐스테드가 특별히 극찬한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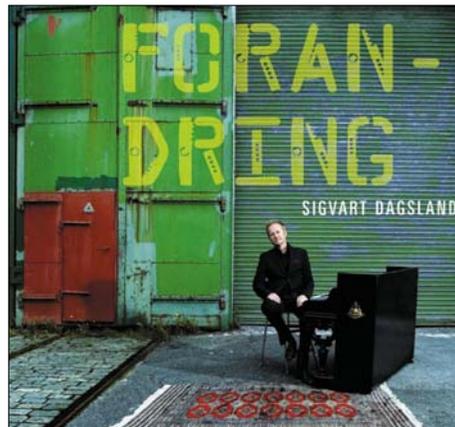
FXCD 325
이베르 클레이베: 레퀴엠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우리 시대 가장 매혹적인 교회 음악가 중의 한사람인 이베르 클레이베의 마음 깊은 감동의 새 앨범. 미국 911 테러 때 희생된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다. 전통적인 라틴어 레퀴엠 텍스트를 기초로, 합창, 두 명의 독창자들이 등장해 노래한다. 이베르 클레이베도 오르간을 연주하며 오슬로 바호 합창단 등과 함께 한다.

 Kirkelig Kulturverksted (KK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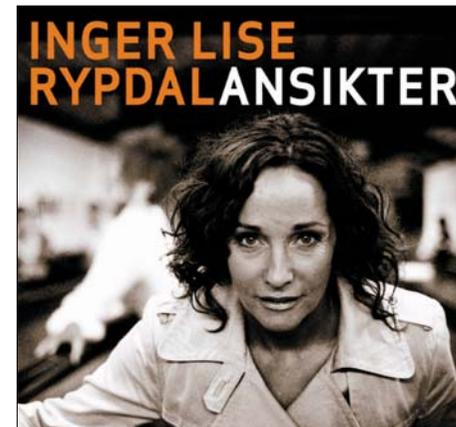
www.kkv.no



FXCD 321
카리 브렘네스: 라이브
 힘, 유회 그리고 시적인 정신의 독특한 표현
 카리 브렘네스의 새 라이브 앨범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겨울 콘서트 레코딩이 내용이 담겼다. 그때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뤘고 연주내용도 너무 좋아서 이번 앨범에 담았다고 한다. 기존 레퍼토리는 신선하게 연주되었고, 벅크니 한센의 키보드를 포함해서 그녀를 돕는 연주자들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연주하는데, 청중들과 하나가 된 뜨겁고 열정적인 무대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수록곡: 안나의 꿈에 관한 노래, 기차 노래, 별이없는 밤, 행복 몇가지, 그대가 돌아온다면, 내 심장이 뛰어요 등 11곡



FXCD 323
시그바르 닥슬란: 변화
 '변화' 레코드의 기념비
 다른 음반사와 10년을 일한 후 닥슬란이 8개의 앨범이나 냈던 KKV에 돌아왔다. 놀라운 음성을 지닌 노래 작곡가가 KKV의 간판 프로듀서 에릭 힐스테드를 만나 오랜만에 놀라운 잠재력을 과시한다. 타이틀곡 '변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세상은 속은 것이다(Verden vil bedras)'를 포함하여 '안쪽으로', '집안의 방', '여기가 갑자기 너무 고독해 졌어', '슬픔', '모든 노래'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실렸다. 레코드의 기념비라고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으로 가득한 신보.



FXCD 324
인게르 리세 립달: 얼굴들
 노르웨이 팝의 진정한 베테랑
 인게르 리세 립달이 오랜만에 KKV를 통해 내놓은 새 솔로 앨범. 생동감 넘치는 그녀의 음성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데, 주로 기회와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투스 등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가 새로운 팝 앨범에 성서 이야기를 모티브로 채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역시 에릭 힐스테드의 프로듀싱, 오슬로에서 녹음되었다.



FXCD 322
올레 파우스: 레이에보른(집에 대한 노래들)
 올레 파우스의 노래들과 1970년대 미국 락 음악을 혼합해 구성된 앨범으로 올레 파우스의 놀라운 재능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가를 잘 보여준다. 연주를 맡은 레이에보른은 '주민들'이란 뜻을 가진 악단으로 드럼, 퍼커션을 연주하는 팔레 크뤼거 등이 모인 단체다. 천장도 있고 다락방, 욕실도 있는 커다란 집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주민'이란 첫 곡을 시작으로 '아무 것도 두려운 것 없어', 'A장조의 편안한 노래', '안녕 엄마', '기억', '산에서 태어나' 등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불려지고, 끝 곡도 '주민'이란 노래로 마무리되었다.



Dynamic

www.dynamic.it

아기자기한 예쁜 바이올린 음악과 오페라의 보물창고 **다이내믹 'DYNAMIC'**

CD의 매력에 빠진 애호가들의 가슴에 환상을 심어주었던 이탈리아의 최고급 레이블 '다이내믹'의 음반이 아울로스 미디어를 통해 배포됩니다.

***이탈리아의 최고급 레이블**

지금처럼 거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숨이 없고, 명동의 조그마한 음반점들에 드나들며 음반을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며 골라보기도 하고, 점원이 강력하게 권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듣는 재미가 있었던 1990년대 당시 애호가들에게 진한 매혹의 향기를 발산하며 사랑을 받던 CD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이내믹'이다. 애호가들은 음악도 듣기 쉽고 다이내믹의 음질이 무척 깨끗하고 곱고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었다.

'다이내믹'은 이탈리아 제노바 부근 리기 언덕에 위치한 조용한 빌라 콰르타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음반사다. 다이내믹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레퍼토리들을 보면, 클래식 음악 전반에 걸쳐 있지만, 주요 관심은 18세기, 19세기의 이탈리아 및 유럽 음악 유산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페라와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집중적으로 발매하고 있다. 다이내믹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음악들도 좋아하지만 좀처럼 녹음되지 않던 숨은 레퍼토리, 그리고 전통 레퍼토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작품들을 발굴해서 녹음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다이내믹이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탐구정신을 얘기해주는 대목이다.

***세계적인 명가수 명연주자들이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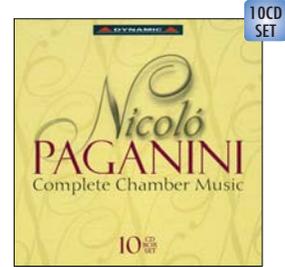
지금까지 다이내믹 레이블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 세계적인 명연주자들이 적지 않다. 파가니니 전문 연주자로 명망 높은 살바토레 아카르도를 위시하여, **펠릭스 아요, 루지에도 리치, 브루노 카니노, 로코 필리피니, 미렐라 프레니, 페루치오 푸르라네토, 플라시도 도밍고, 레나토 브루손, 베로니코 장, 조르주 프레트르, 호세 쿠라** 등 지금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최정상 음악가들이 아주 많다.

***파가니니 음악의 보물창고**

다이내믹 레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곡가 이름은 단연 이탈리아가 낳은 바이올린 예술의 귀재 니콜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의 고향 제노바에 있는 화사이기 때문인지 파가니니의 음악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의 많은 바이올린 레퍼토리들을 내놓았다. 그중에는 세계 최초로 음반에 소개한 레퍼토리들도 적지 않아 파가니니를 재평가하는데 다이내믹이 얼마나 커다란 기여를 해왔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파가니니 음악은 앞서 언급했던 파가니니 최고의 연주자 살바토레 아카르도와 그의 제자이자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 마시모 콰르타의 맹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오페라 발굴 녹음에 엄청난 기여**

오페라 하면 역시 이탈리아다. 주지하듯이 최초의 오페라하우스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건립되었고, 수많은 유명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공연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오페라 자료의 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다이내믹은 조금 덜 알려진 오페라까지 개척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베르디, 도니체티, 푸치니 등 자국 작곡가는 물론, 마스네, 마이어베어,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까지 덜 알려진 오페라의 발굴 녹음하는데 다이내믹이 기울인 노력은 실로 크다. 지금까지 나온 오페라 레퍼토리들이 너무도 많고 좋지만, 최근에는 추세에 맞춰 DVD 영상물에도 적극 신경써왔는데, 다이내믹이 어느새 유럽의 괄목할만한 오페라 DVD 제작사의 이미지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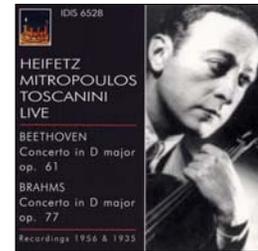
Dynamic CDS 553/1-10
파가니니: 실내악곡 전집
연주: 살바토레 아카르도 등
 유려하고 풍성한 선율 가득한 실내악곡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두에토 아모로소' 같은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내악은 파가니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썼던 장르였다. 흔히 알려진 파가니니의 실내악곡은 15곡의 기타와 현악기를 위한 사중주곡과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이중주곡 등인데, 이 음반 세트는 그가 쓴 거의 모든 실내악곡들을 10장의 CD에 빼곡히 담아놓은 것이다. 보통 실내악이 작곡가의 내밀한 정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파가니니의 실내악곡은 작곡가의 독특한 재능과 음악성을 대변해주는 매우 개인적인 작품이다. 파가니니의 실내악은 크로이처나 플라 같은 작곡가들이 간 길을 따라간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인 바, 특유의 매혹적인 패시지와 유려하고 풍성한 선율선이 많아 매우 서정적이고 편안하게 들린다.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는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를 충분히 잘 연주할 수 있었는데, 이 음반의 실내악곡들은 그가 평생에 걸쳐 작곡했던 기타가 포함된 실내악곡들이 많다. 익히 들어왔던 고전, 낭만주의 시대의 사중주곡이 아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기타의 사중주곡, 바이올린과 바순을 위한 이중주 등 매우 파가니니적인 작품들이다. 파가니니의 실내악곡은 낭만적 감성이 가득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고전주의가 지향한 아름다운 균형미의 소산이다. 콘서트홀에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 화려한 연주를 펼쳤던 파가니니였지만, 실내악곡에서 그는 자유롭게 분출하는 낭만적인 감성을 침착한 고전적 창조성과 잘 조화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다.



Dynamic CDS 527/1-3
롤리: 바이올린 협주곡 전집
연주: 레알레 콘체르토
바이올린 독주 & 지휘: 루카 판포니
 도박에 미친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막히게 아름다운 음악 안토니오 롤리는 1725년경에 베르가모에서 태어나 1802년 팔레르모에서 세상을 떠난 18세기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이다. 1758년부터 1772년까지 슈투트가르트의 뷔르템베르크 궁정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했고 이후 러시아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아니 '파가니니 이전에 롤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습적인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가난 속에서 죽어야 했다. 그는 17개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3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썼는데, 이 음반에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주곡들을 엄선해 담았다.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바이올리니스트, 하지만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다.



Dynamic CDS 554/1-6
훔멜: 대표작품선집
연주: 줄리아나 코르니, 마르타 마치니, 스테파노 피우치 등
 천재가 인정한 천재, 훔멜의 매혹적인 작품들 1778년 포소니에서 태어난 훔멜은 모차르트의 제자이며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천재였다. 그는 다섯 살에 바이올린을, 여섯 살에 피아노를 연주했다. 저만치 앞서 있던 천재 모차르트는 뒤돌아보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빈에서 훔멜을 만난 그는 훔멜의 탁월한 재능에 매료되어 그에게 돈을 받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 천재 선생에게 배운 천재 제자는 당연하게도 유럽 제일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작곡가로써도 능수능란한 음악적 기술을 지녔던 훔멜은 괄목할만한 기악작품들, 오페라, 미사곡, 성악곡들을 창조해냈다. 물론 피아노의 대가였던 그는 피아노가 포함된 작품에서 대단한 역량을 보였다. 7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많은 소나타들, 그리고 피아노 소품들은 그의 작품목록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은 그의 영예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일찍이 시인 켈슈타프는 훔멜의 얼굴을 예술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권위적인 부르조아 형으로 그린 바 있지만, 실제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스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아름다운 독일어를 구사했던 훔멜은 겸손했고, 독선과 고집 보다는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성품은 포근한 환상과 간헐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에 잘 나타난다. 이 음반에 실린 음악들은 모두 피아노가 포함된 것들이다. 아기자기한 피아노 작품들을 담은 피아노 독주곡집이 1,2,3권으로 나뉘어 실렸고,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 한 장의 음반에 담겼는가 하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플루트, 비올라, 만돌린,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음악 등 평소 잘 접하기 어려웠던 매혹적인 고전주의 음악들로 가득하다.



Dynamic IDIS 6528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야샤 하이페츠(바이올린), 뉴욕 필하모닉-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미트로폴로스 & 토스카니니
 20년 터울 하이페츠의 숨겨진 연주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가 1956년(베토벤)과 1935(브람스)년에 남긴 협주곡 녹음이다. 베토벤 협주곡이 특히 감동적이다. 하이페츠의 독특한 프레이징, 리듬, 감정의 교감이 완벽하게 교감되고, 피날레에서는 특유의 빠른 템포가 가슴에 육박한다. 토스카니니와의 브람스 협주곡은 몇 년 후 쿠세비츠키와 함께했던 스튜디오 레코딩과 템포가 거의 같고, 여전히 구식의 포르타멘토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격조높은 테크닉과 인토네이션, 수정처럼 맑은 톤을 들려준다. 토스카니니의 완벽한 통제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 감동적인 연주다.



Dynamic IDIS 6529
라자르 베르만이 연주하는 베토벤
 학술고대하던 베르만의 '열정' 소나타
 러시아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이 남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이다. '열정' 소나타, '비창' 소나타를 포함해 다섯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간 들을 수 없었던 음원이었지만 특별히 베르만 가족의 허락으로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베르만이 존재를 화려하게 드러내던 1970년대의 녹음들이 네 곡이고 나머지 한곡은 1984년 녹음. 리스트의 음악으로 명망 높았던 그의 탁월한 테크닉이 베토벤에서 황홀하게 발현되는 것에 대해 몇몇 애호가들이 열광해왔는데, 과연 놀랍다. 폭발적인 힘과 정열에 관한 한 베히우스를 능가하는 '열정' 소나타, 특히 3악장은 압권이다.



Dynamic IDIS 6530/31
토스카니니: 푸치니 레코딩 전집
 1940년대 토스카니니의 귀중한 푸치니 레코딩
 이탈리아의 거장 토스카니니가 1946년에 2월 3일과 10일에 뉴욕에서 NBC교향악단 및 합창단으로 녹음했던 <라보엠>전곡과 1946년 5월 11일 밀라노에서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녹음했던 <마농 레스코>의 인터메초와 장면들이다. 그리고 1949년 12월 10일 뉴욕에서 녹음한 <마농 레스코>의 인테르메초도 따로 담았다. 특히 <라보엠>은 1896년 투린에서 그 명작을 초연했던 인물인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Dynamic CDS 43/1-2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30개의 소나타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아주 젊었을 때 루카에서 작곡한 매력적인 소나타들
 파가니니가 아주 젊었을 때 루카에서 1806년부터 1809년까지 작곡했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들을 모은 음반이다. 시절을 보면 나폴레옹의 누이 엘리자 바치오치가 창단한 오케스트라에서 제 1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생활하던 때의 작품인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작품이며, 6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름다운 여성 통치자의 궁정에서 일하던 그가 느꼈을 법한 미묘한 사랑의 느낌이 담긴 음악들이 많은데, 아무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파가니니의 서정을 만끽하게 한다.



Dynamic CDS 34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선집 Vol.3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대중적 활용을 위한 소나타의 집록
 6개의 소나타로 묶여 세 세트 구성되어 있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18곡의 소나타는 흔히 '소나타의 집록'의 작품들로 불려진다. 물론 파가니니가 붙인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작품집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즐거움을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음악들이란 의미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연주만으로 따분할 때 가방에서 꺼내 연주했다는 베를리오즈의 증언도 있다. 오늘날에도 대중적 인기는 아주 높다. 기타는 거의 종속되어 있고 바이올린의 매우 자유로운 활약이 특징이다.

파가니니와 그의 음악 이해를 위한 보충자료

1782년 제노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작곡가 파가니니(Paganini, Niccolò 1782~1840)는 신기에 가까운 바이올린 연주법으로 19세기 초반 낭만주의 음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비록 그의 기법을 전수 받은 명인이 나타나지 않아 그의 독특한 연주법은 자신의 시대에서 마감해야 했지만, 파가니니의 예술은 그동안 완벽한 바이올린 연주법의 축도가 되어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파가니니의 특출한 기교적 완성도는 그의 대중적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가 쾌속의 화려한 기교만으로 대중들을 매료시켰던 것만은 아니다. 많은 음악가들은 그의 '아다지오(Adagio)' 에도 완전히 반해버렸다. 혹자는 '어떤 가수의 노래도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아다지오만큼 나를 깊이 감동시킨 적은 없었다' 고 백했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들은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의 귀재로서 그의 비르투오소적 재능만을 높이 사는 우리들을 많이 반성하게 만든다. 즉 우리는 파가니니란 인물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했던 바이올린 연주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완벽한 경지에 이른 탁월한 음악가였다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Friedrich Wieck)교수도 '그렇게 모든 장르에서 똑같이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음악성을 지닌 예술가는 없었다' 고 파가니니를 극구 찬미했다고 한다. 그 자신이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파가니니의 작품들은 대부분 바이올린을 위한 것들이다.(물론 그의 작품 중에는 기타 독주곡도 있고 칸초네타 등 성악곡도 있으나 그것들은 극소량이며 유실된 것이 많다.) 우리는 그의 유명한 6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작품 목록에는 그밖에도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또,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실내악곡, 그리고 바이올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작품들도 상당량 그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한편 파가니니한테는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작품들도 조금 있는데, 가령 우리에게도 친숙한 24개의 카프리치오(1820년에 지오반니 리코르디가 출판) 등이 그것이다. 자신의 악기인 바이올린 외에 파가니니는 기타를 무척 좋아했다. 1805년경에 씌어져 1820년에 출판한 유명한 6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두 가지(Op.2와 Op.3)는 모두 기타반주로 된 작품이었다. 다이내믹 음반은 이 두 세트의 소나타를 모두 실고 있을 뿐만 '나폴레옹 소나타', '마리아 루이자 소나타' 등 표제가 붙은 소나타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는 소나타들을 거의 연주해서 담아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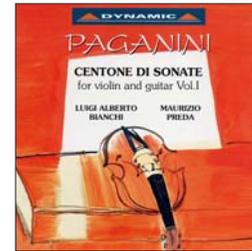
파가니니 관련 음반들



Dynamic CDS 62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Op.2 & Op.3
칸타빌레와 왈츠
두에토 아모로스(최초 레코딩)
칸타빌레 D장조
연주: 프랑코 메체나(바이올린)/ 아드리아노 세바스티아니(기타)
 루카 시절의 매력적인 실내음악들
 파가니니가 리코르디에게 1818년 건네주었으나 출판은 2년 후에 이뤄졌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두 세트의 녹음이다. 정확하게 언제 작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파가니니가 루카에서 엘리자 바치오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씌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모두 개인적인 연주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응접실에서 연주되고 했던 음악들이다. 끝에는 칸타빌레 D장조 한 곡이 실려 있는데, 센티멘탈하고 살롱풍의 곡들이 대부분이고, 바이올린 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사용하던 파가니니 특유의 서정적 표현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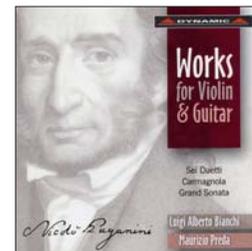
Dynamic CDS 84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선집 Vol.2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더 깊은 표현력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선집 2권은 앞서 3권에서 보여줬던 내용보다 더 깊은 표현력을 갖춘 것들이며, 기교도 조금은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 형식상의 자유가 한껏 느껴지고, 소위 메들리 소나타로 불리는 이 소나타들에서 파가니니는 자신이 얼마나 독창적인 주제를 끌어올 수 있는 작곡가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편 플라카와 론도 같은 형식의 작품들은 파가니니가 당대의 음악 양식과 자신의 창작방향을 얼마나 잘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준다. 매력적으로 넘쳐흐르는 선율이 많은 이런 음악은 과거나 지금이나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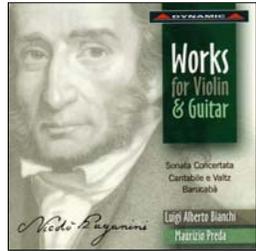
Dynamic CDS 148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선집 Vol.1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높은 수준의 표현력을 보여주는 바이올린
 파가니니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포함한 실내악곡을 쓰려고 했던 것은 1700년대 말쯤이었다. 1800년대 초에 루카의 바치오치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면서 그는 이런 조합의 실내악곡을 33곡이나 썼다. 특징은 모두 바이올린의 표현력이 아주 강했다는 점에 있는데, 그것은 주로 베토벤이나 하이든의 유산을 이어받은 부분이었다. 바이올린은 전면에 부각되고 반면에 기타는 화음을 넣거나 아르페지오 혹은 몇몇 생생한 패시지를 통해 바이올린을 반주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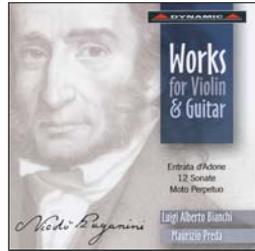
Dynamic CDS 550/1-2
파가니니: 37개 기타 소나타 M.S.84
연주: 귀도 피크트너(기타)
 미뉴에트로 시작하는 예쁜 소나타
 바이올린의 귀재였지만, 작곡가로서도 명망이 높았던 파가니니는 젊은 시절에는 기타 음악을 써보기도 했었는데, 이 음반은 파가니니의 기타 독주를 위한 소나타곡들을 실고 있다. 이 음반에 실린 37개 소나타들은 몇몇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미뉴에트로 시작한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간결한 맛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소품들이다.



Dynamic CDS 440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M.S.110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곱고 아름다운 선율들
 파가니니의 음악으로는 널리 알려진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이다. M.S.110은 파가니니가 활동초기에 썼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콘서트 작품이기보다는 여흥을 위해 즐기 위해 쓴 작품이다. M.S.2는 소나타 콘체르타로, 제노바의 귀부인 에밀리아 디 네그로한테 헌정된 것이다. 그랜드 소나타는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작품이지만, 기타의 비르투오소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등 특성이 좀 다르다. 넘치는 선율이 고운 선율이 따스하게 흐르는 실내악곡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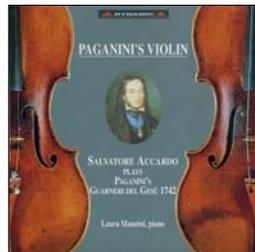
Dynamic CDS 435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간결하지만 잠재력이 큰 음악
 M.S.45의 '칸타빌레와 왈츠'는 파가니니가 1822년부터 1824년까지 자주 방문했던 시보리 가정의 어린 아들 카밀로한테 레슨을 할 때 그를 위해 써준 음악이다. 카밀로는 19세기 후반 바이올리니스트와 작곡가로 성공하게 된다. 연주시간이 7분가량. 날찍하게 노래하는 서정적인 선율이 일품이다. '바루카에 의한 변주곡 M.S.71'은 파가니니가 쓴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곡들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작품이다. 제르미(Germi)라는 아마추어 연주자한테 헌정한 작품. 간결하지만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변주곡들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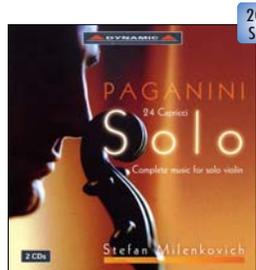
Dynamic CDS 411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M.S.8 & 26 & 27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풍부한 낭만적 감성의 음악
 MS26은 루카에서 1805년과 1809년 사이에 써어진 작품으로, 모두 2악장 구조로 되어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바이올린이 워낙 표현영역이 넓고 유려해서 바이올린 연주자는 물 흐르는 듯한 음악의 특성을 잘 좇아야 하는데, 과연 파가니니 연주자로서 비안키의 실력은 대단히 탁월하다. 끝 곡으로 실린 MS72의 알레그로 비바체 모비멘토 페르페투오는 한참 후인 1835년에 쓴 것으로, 여흥을 위해 작곡한 것이 아니라 콘서트홀을 위해 쓴 작품이다. 모두 풍부한 낭만적 감성이 깃든 대단히 아름다운 음악들이다.



Dynamic CDS 294
파가니니: 루카 소나타 Vol.2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12개의 소나타 op.3 & op.8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바이올린), 마우리치오 프레다(기타)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루카에서 쓴 소나타
 루카는 1805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의 누이인 엘리자 바치오치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파가니니는 1805년부터 1809년 사이에 그 바치오치 아래에서 일하며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를 많이 작곡했다. 루카 소나타란 바로 그 당시 써어진 소나타를 일컫는 말이다. 함께 실린 '두에도 아모로스'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파가니니 특유의 서정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실내악 곡들이다. 2000년 당시 새롭게 발견된 판본으로 연주했다.



Dynamic CDS 175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 살바토레 아카르도(바이올린), 라우라 만치니(피아노)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명기 1742년산 과르네리로 연주한 음반.
 우선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로 최고의 파가니니 연주자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프란체스카티 편곡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비단결 보다는 더 질감이 좋을 것 같은 톤으로 연주해준다. 나탄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가니니아나', 요제프 수크의 '사랑의 노래'도 가슴을 녹인다.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는 아카르도의 신기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만끽하게 한다. 요아힘이 편곡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엘가의 '카프리스', 라벨의 '하바네라 형식의 소품', 드뷔시의 '달빛' 등도 명기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 딜릭스 박스세트의 대형 포스터와 두툼한 책자는 없지만, 내지 해설은 충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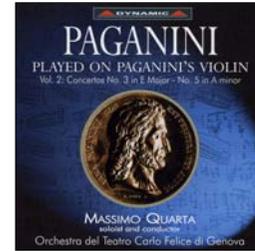


2CD SET

Dynamic CDS 402/1-2
파가니니: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 카프리지오
연주: 스테판 밀렌코비치(바이올린)
 기교나 열정 외에 뭔가 다른 파가니니를 기대한다면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지오는 작곡연대를 포함해 알려진 것이 부족해 파가니니 화자들에게는 엄청난 수수께끼인 곡이다.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2위를 했던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밀렌코비치의 빼어난 연주로 담겼다. 빠르고 격렬한 연주를 기대한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어렵겠지만, 파가니니의 음악에서 기교나 열정 외에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맛을 주는 음반이다. 두 장의 CD에는 카프리스 외에 갖가지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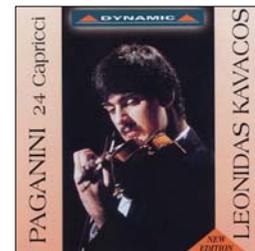
Dynamic CDS 260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Vol.1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2번
연주 및 지휘: 마시모 콰르타,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오리지널 악기와 오리지널 조성으로 연주된 협주곡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1742년산 과르네리로 연주한 음반이다. 또한 스코어도 파가니니 자신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썼다. 따라서 협주곡 1번의 경우 흔히 D장조로 연주해왔으나 이 음반에서는 최초로 원래 필사본 조성인 E플랫 장조로 연주했다. 2번도 1악장의 칸덴차를 연주자가 썼을 뿐 원본에 충실한 해석이다. 연주자 마시모 콰르타는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제자이며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다. 그야말로 3박자가 다 들어맞아 작곡가의 정신을 해석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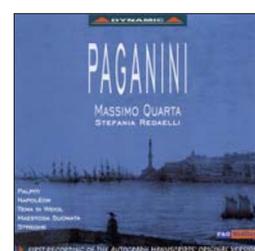
Dynamic CDS 300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Vol.2
바이올린 협주곡 3번 & 5번
연주 및 지휘: 마시모 콰르타,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최후의 역작 협주곡 5번
 역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집 2권으로, 협주곡 3번과 5번을 담았고, 특별히 5번의 경우 프란체스코 피오레의 새로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했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3번도 지올리오 오데로 선생과의 공동연구로 마시모 콰르타가 새롭게 개정한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연주들과 비교해 듣는 재미가 크다. 파가니니의 최후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던 A단조 협주곡은 그가 만년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작품이라서 음악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 많다.



Dynamic CDS 400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Vol.3
대 협주곡 E단조 &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연주 및 지휘: 마시모 콰르타,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새롭게 발견된 협주곡의 복원노력
 파가니니의 과르네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협주곡 시리즈 제 3권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4번과 대 협주곡을 수록하고 있는데, 둘 다 연주자인 마시모 콰르타의 개정판 스코어를 사용했다. 그랜드 콘체르토, 즉 대협주곡은 1972년 런던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No.6 혹은 No.0의 협주곡이다. 하지만 파가니니가 매긴 번호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24개 카프리스 op.1을 쓰기 이전의 아주 초기의 작품이다. 간결하지만 매우 열정적인 선율이 생생한 감동을 준다.



Dynamic CDS 66
파가니니: 24개 카프리지오
연주: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이제까지 들었던 카프리지오 연주 중 최고!
 디아파중, 그라모폰 등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지에서 격찬했던 90년대 초반 출시 음반으로, 최근 잘츠부르크 카메라타의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그가 약 16년 전의 탁월한 솜씨를 증명해 보인다. 그라모폰 '비평가의 선택(Critic's Choice)'에 꼽힌 음반이고, 많은 애호가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24개 카프리지오 연주 중에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서슴지 않았던 명반이다. 이 난곡을 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테크닉은 물론 음악적인 표현력과 감수성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파가니니의 세계를 구현해준다.



Dynamic CDS 232
파가니니
연주: 마시모 콰르타, 스테파니아 레다델리
 중요한 경력에 들고 나섰던 음악들
 '나폴레옹 소나타', '이 팔피티', '바이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파가니니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써어졌던 작품들을 담고 있다. '나폴레옹 소나타'는 1805년부터 1809년 사이에 써어진 것으로, 이른바 넷째 현을 위한 작품으로 쓴 것으로는 이 나폴레옹 소나타 마녀들의 춤, '레 스트레게'가 처음이었다. 이런 작품들을 연주하면서 파가니니는 콘서트 연주자로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팔피티'를 통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낭만적 신화를 쓰게 되었다. 그의 중요한 경력에 함께했던 명곡들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 마시모 콰르타가 완벽하게 재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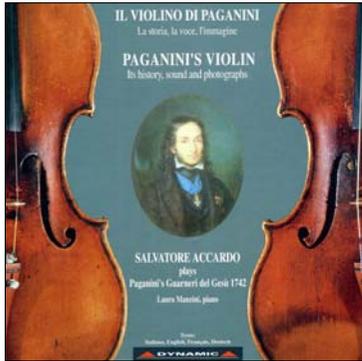


Dynamic CDS 259
파가니니: 그란 비올라
연주: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 브루노 카니노, 베를린 RIAS 오케스트라
 조금은 큰 비올라의 이채로운 음향 1828년부터 1834년까지 파가니니는 긴 유럽여행에 들어가는데,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 '그란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는 그때 작곡한 음악이다. 라 캄파넬라가 조금은 목직한 비올라 연주로 듣는 즐거움은 매우 이색적이다. 이밖에도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사라사테의 '사파테아도', 블로흐의 신에게 바치는 노래인 '니 군', 라벨의 '하버네라', 드뷔시의 '아마 빛 머리의 소녀' 등이 연주된다. 연주자 비안키는 1595년산 아마티 비올라를 연주한다.



Dynamic CDS 01
파가니니 역사적 기록들
연주: 살바토레 아카르도 등
 파가니니와 관련한 연주기록들의 역사적 의의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들고 파가니니의 "바루카 바" 주제에 의한 60개의 변주곡을 녹음한 기록은 세계 최초 레코딩이라는 의미로 담겼는가 하면, 줄리오 비나미의 바이올린과 산드로 푸가의 피아노로 연주되는 1937년 4월 4일 제노바에서 첫 방송을 탔다는 의미로 수록되었다. 바사 프리호다의 연주를 들을 수도 있고, 토스카니니와 NBC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페르페툼 모빌레, 즉 무궁동을 들을 수도 있다.

다이내믹의 독보적 아이템 – 위대한 바이올린의 세계



Dynamic CDS 137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그 역사, 소리 그리고 사진자료들
딜럭스 시리즈(책 + CD + 폴사이즈 칼라 포스터)
연주: 살바토레 아카르도(바이올린), 라우라 만치니(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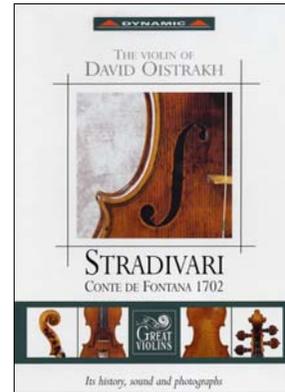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귀히더귀한 명기 1742년산 파르네리로 연주하다
 이탈리아 다이내믹 레이블의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출시되어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제목 그대로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바이올린 명기 파르네리 델 제수(흔히 '파르네리우스'라고도 불린다)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호화박스세트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즉 1742년에 주제페 파르네리가 제작했던 '파르네리 델 제수'는, 파가니니가 1782년생이니까, 그가 태어나기 꼭 4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였다. 파가니니는 이 파르네리에 대해 '나의 대포 바이올린(il mio cannone violino)'이라고 불렀다. '대포'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물론 그 바이올린의 소리가 크고 풍부하며 강한 인상을 주는 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가니니는 파르네리의 그런 특성에 힘입어 커다란 홀에서 바이올린 하나로 청중을 압도할 수 있었다. 물론 음색도 무척 깊고 고혹적이다. 불세출의 바이올린 귀재, 바이올린 비르투오소의 대명사인 파가니니가 생전에 청중을 기절시켰던 기막히게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재현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감동이다.

-파가니니 최고의 권위자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연주
 파가니니의 이 중요한 아이템의 연주를 맡은 주인공이 이탈리아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인 살바토레 아카르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3세에 파가니니의 카프리치오를 연주하면서 첫 독주회를 열고 경력을 시작했던 아카르도는 1958년 파가니니의 고향 제노바에서 열린 파가니니 콩쿠르의 우승자였다. 이미 우리는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치오, 6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담은 음반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를 파가니니 최고의 전문 연주자로 알고 있다. 이 귀중한 파가니니 아이템의 연주자로 그보다 더 적격인 사람을 생각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완벽한 기교에 파르네리의 고혹적인 음색을 잘 드러내주는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만약 다른 연주자가 연주했으면 얼마나 커다란 기회손실이였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너무도 아름다운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지만, 이 음반은 파가니니의 곡들만으로 꾸며져 있지는 않다. 시마노프스키가 새로 만든 파가니니 카프리스가 마지막 세 개 트랙에 몰려 있을 뿐 나머지 레퍼토리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올린 소품들이다. 하지만 진부하지 않게 너무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처음부터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타르티니의 작품을 프란체스카티가 편곡한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비단에 비교해야 할지 그보다 더 감촉이 좋은 어떤 것에 비유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도 질감이 좋은 명기의 음색에 처음부터 매혹된다. 나탄 밀스타인이 즐겨 연주하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가니니아나'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으로 들으니 맛이 아주 다르다. 또 요제프 후크의 가슴을 녹이는 '사랑의 노래'도 실렸고,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에서는 서주의 애잔한 서정과 후반의 열정적인 타란텔라에서 온화한 사랑과 격정을 반반씩 느끼게 된다. 아카르도의 신기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최초로 만끽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어 요아힘이 편곡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도 한 편 흐르고, 엘가가 친구한테 바쳤던 '카프리스' 한곡은 흥겨움에 어깨를 들썩거리게 만든다. 그 외 쇼스타코비치의 '두 개의 전주곡', 라벨의 '하버네라' 형식의 소품, 드뷔시의 '달빛' 등이 연신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준다. 감동의 흐름 74분이나 된다.

-호화박스의 장점 – 대형 포스터와 두꺼운 책자
 이 아이템은 호화박스를 뺀 음반만 판매되기도 한다. 음악과 연주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음반만도 잘 팔린다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아이템은 박스로 구입해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된다. 이 호화박스 안에는 대형 포스터가 들어있고, 파가니니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인 1742년산 파르네리에 대해 집중 해설한 두꺼운 책자가 들어있다. 예전에 어느 집에 놀러 가니 이 세트에서 나온 파르네리 바이올린 대형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던 기억이 난다. 포스터 뒷면에는 이 명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다. 두툼한 책자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파가니니가 쓴 유언장이다. 파가니니의 필체 그대로 실렸는데, 유언에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제노바 시에 헌납하며 영원토록 잘 간직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악기 제작자에 대한 영혼의 인사까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제노바 시장의 인사말과 파가니니 연구원 알바 브루게라 카팔도 원장의 인사말이 서두를 장식한다. 각종 그림과 사진자료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파가니니가 런던에서 구입해서 유럽 여행 때 타고 다녔던 마차 사진도 들어 있고, 파가니니의 초상화는 물론이고, 그의 하나 밖에 없던 아들의 사진이 실렸는가 하면, 1958년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당시에 찍은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젊은 모습도 보인다. 책자의 제목처럼 파르네리에 대한 역사와 소리의 특징, 그리고 세밀하게 카메라를 댄 바이올린 사진들은 명료하게 담겼다.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명사 파가니니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바이올린 파르네리에 대한 감동적인 정보들이 가득한 인쇄된 보배다.



Dynamic CDS 389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그 역사, 소리 그리고 사진자료들
(책 + CD + 폴사이즈 칼라 포스터)
연주: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리카르도 브렌콜라 등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쓰던 명기의 매력적인 음색
 음악애호가 투표에서 항상 1위를 하는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쓰던 1702년산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에 대한 아이템이다. 파르네리와 함께 바이올린 명기의 이름 스트라디바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트라디바리는 이탈리아 크레모나의 바이올린 제작자 가문의 명칭이다. 물론 가문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로 그는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9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1737년에도 스트라디바리는 이른바 그의 '마지막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수많은 바이올린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나다고 평가 받는 것은 역시 모델을 개량하기 시작한 1700년부터 1720년까지 만들어진 악기들이다. 그때가 말하자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제작의 '황금기'였던 것이다.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은 1702년산,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의 황금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만들어진 수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귀히더귀한 명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딜럭스 아이템에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에서처럼, 조금 작기는 하지만, 대형 스트라디바리 포스터가 들어 있고, 역시 조금은 얇지만,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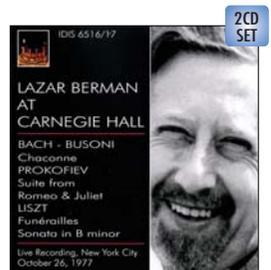
-스트라디바리의 미려한 음색을 만끽하게 하는 음악들
 CD에 포함된 음악들은 모차르트의 G장조 바이올린 협주곡 K.219를 시작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100의 2번, 드보르자크의 네 개의 낭만적 소품 op.75, 에네스쿠의 소나타 op.6의 2번,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카프리치오다. 첫 트랙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직접 자신의 스트라디바리를 연주한 것. 1961년 5월 11일 스위스 루가노 방송 음원인데, 자신의 명기로 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는 특유의 따스하고, 생기에 넘치는 사운드를 들려준다. 실험음원이기 때문에 연주가 끝나고 생생한 박스소리도 담겼다. 한편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리카르도 브렌콜라가 1982년에 밀라노에서 녹음한 것이고, 드보르자크의 낭만적 소품 네 곡은 20세기 후반의 뛰어난 이탈리아 연주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프랑코 굴리의 1985년, 역시 밀라노 음원이다. 특히 드보르자크의 소품 첫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가 흐르면 브람스의 음악으로 다소 긴장되었던 가슴이 따스한 햇살에 눈 녹듯이 녹는다. 마지막 두 곡은 루마니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야나 시르부트의 연주로 에네스쿠의 두 번째 소나타인 op.6과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카프리치오인데, 각각 1987년과 2002년 녹음이다. 가장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는 연주들이다. 두 연주 빼어나지만, 연주가의 뛰어난 테크닉과 함께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음색을 효과적으로 잘 들려주는 것은 크라이슬러의 작품에서다. 모두 오이스트라흐의 연주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다른 연주자들의 음원들도 명기의 잠재력이나 매력적인 음색을 얻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희귀 음원의 보물창고, 다이내믹의 히스토리컬 음반 - 이디스 'I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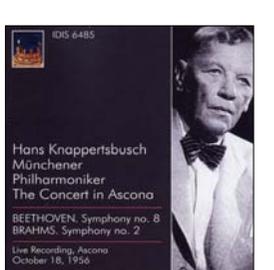
SACD 등 초고음질 음반을 듣고 있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현재 CD의 녹음기술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잘 갖춰진 시스템에서 듣는 고음질 CD는 악기소리가 제대로 분리되는 고해상도, 실내악단이나 오케스트라를 안방에 옮겨놓은 듯한 음장감을 제공하고, 질감도 LP의 느낌에 거의 근접하다고 말한다. 이런 시대에 지글거리고 음색에 그늘진 부분이 많은 옛 녹음을 찾아 듣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미가 요즘 연주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 주위에는 옛 녹음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사람들에게 요즘 연주와 비교한 음질 얘기는 별 효용이 없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명료한 음성으로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 순수해질수록 아름다운 것이다. 인성의 발전이란 진실해지고 순화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극상의 음질은 음의 조건일 뿐, 인간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음악 본연의 목적과는 별 관계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음향적 약점은 갖고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에 진력하고 헌신했던 옛 연주자들의 음악이 지닌 가치는 좀처럼 퇴색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중요 레이블 다이내믹이 출시하고 있는 역사적 음반, 이디스(IDIS)가 우리 애호가들에게 다가간다.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에네스코의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세계 최초 CD녹음)부터 눈에 띈다. 이른바 '에네스쿠 비브라토'로 독특한 색감의 바흐를 들려줬던 거목의 1940년대 초반의 녹음이다. 바흐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주자의 중요한 음원이다. 소프라노 슈바르츠코프의 후고 볼프의 가곡집도 흥미롭다. 24비트 복원으로 이제는 전설이 된 명가수의 음성도 푸르트벵글러의 뚜렷한 피아노 반주 실력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음반이다. 가슴에 촉촉하게 와 닿는 슈바르츠코프의 노래도 참 아름답지만, 푸르트벵글러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953년 8월 12일 잘츠부르크 실황이어서 거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 베토벤 해석의 제 1인자 빌헬름 바하우스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5번도 있다. 1951년과 1952년 빈에서 클레멘스 크라우스의 빈필과의 스튜디오 녹음이다. 지네트 느브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비운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에 매료된 애호가들의 초미의 관심 품목이다. 에네스코 악파가 탄생시킨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예후디 메뉴인을 첫 손가락에 꼽지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지네트 느브도 그에 못지 않은 스타다. 브람스 협주곡은 EMI의 시벨리우스 협주곡과 짝을 이룬 GROC음반의 음원과 같은 것이지만, 이 음반에는 그 당시 함께 녹음했던 쇼송의 시곡이 실려 있다. 카를로스의 아버지 에리히 클라이버가 1948년에 런던 필과 녹음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은 아주 흥겨운 기조로 매혹적인 전원풍경을 선사하는 연주다. 특히 폭풍우 악장의 폭발적인 힘은 압권이다. 베를린 필과 1929년에 녹음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도 함께 실려있다.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로 실내악 연주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아돌프 부슈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한 1942년 음원도 이디스 음반으로 나와 있다. 뉴욕필을 지휘한 사람은 그의 형인 프리츠 부슈다. 아돌프 부슈는 독일 바이올리니스트로 3B의 독일 음악가, 즉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연주에 정평이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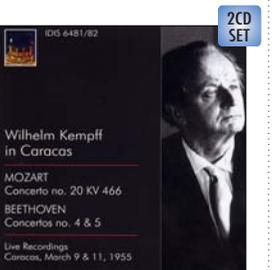
이 음반에는 브루노 발타가 지휘한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된 부조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함께 실렸다. 푸르트벵글러의 브람스 교향곡 1번은, 거장이 이 작품에 특별히 애정을 갖던 1950년대의 녹음, 정확하게 1952년 2월 2일 베를린 티타니아 팔라스트에서의 연주기록이다. 최근 녹음과도 다른 것이고, 흔히 듣게 되는 같은 해 1월 연주와도 다른 것이다. 1악장의 코나나 2악장이 상당히 여유 있는 템포로 진행되지만, 악곡 곳곳에 깃든 특유의 풍모나 주술적인 환상은 20세기 브람스 해석의 최고 권위자임을 확인시킨다. 슈베르트 로지문데 서곡, 슈만의 만프레트 서곡이 귀한 보너스로 들어 있다. 이디스에는 이밖에도 주목할 만한 음원들이 많은데, 24비트 96 KHz로 복각된 요즘 음원들은 역사적 녹음치고는 음질도 빼어나다.



IDIS 6516/17
라자르 베르만 카네기 홀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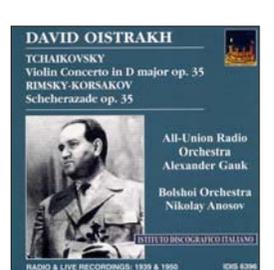
IDIS 6485
한스 크나퍼츠부슈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56년 아스코나 콘서트



IDIS 6481/82
카라카스에서 빌헬름 쾰프
1955년 실황



IDIS 6488/9
지오콘다 데 비토
실내악 레퍼토리
스튜디오 레코딩



IDIS 6396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림스키 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가우크 & 아노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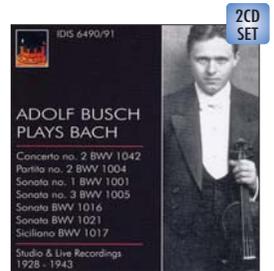
IDIS 6470/71
라자르 베르만이 연주하는 리스트
1974년 브레시아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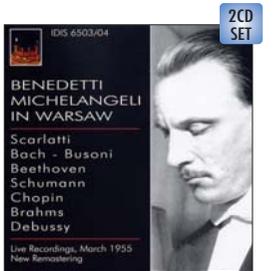
IDIS 6382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이중 협주곡
하이페츠/쿠세비츠키/오먼디



IDIS 341
리파티가 연주하는 바흐
1947년, 1950년 녹음



IDIS 6490/91
아돌프 부슈가 연주하는 바흐
1928-1943년 녹음



IDIS 6503/04
미켈란젤리:
바르샤바 콘서트 실황
1955년 녹음



IDIS 6499
하이페츠/기제킹/칸텔리
멘델스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 피아노 협주곡
1954년 1955년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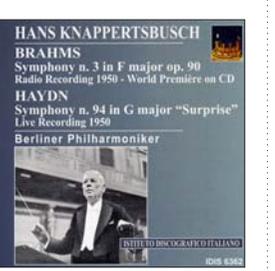
IDIS 6497/98
라자르 베르만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1976년 밀라노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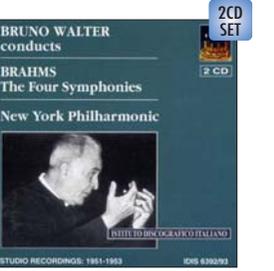
IDIS 6495/96
호로비츠가 연주하는 쇼팽
1932년-1951년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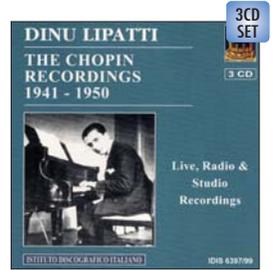
IDIS 6378
지오콘다 데 비토
스튜디오 레코딩 VOL.2



IDIS 6362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든: 교향곡 94번
연주: 베를린 필/ 한스 크나퍼츠부슈



IDIS 6392/93
브람스: 교향곡 전곡
연주: 뉴욕 필/ 브루노 발타
1951-1953년 스튜디오 녹음



IDIS 6397/99
리파티 쇼팽 녹음
1941-1950



IDIS 6436
질리가 부르는 성가곡
엘티비트 컬렉션



IDIS 6443/4
지오콘다 데 비토
베토벤/바흐/비올리 협주곡
비탈리 사콘



IDIS 6433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번
스코틀랜드 환상곡



IDIS 333
지오콘다 데 비토
1947-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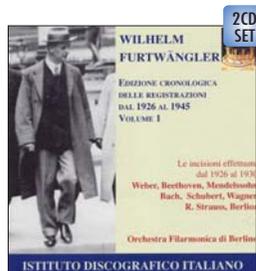
IDIS 277/78
푸르트벵글러 & 베를린 필
드보르자크, 바흐, 로시니, 브람스 등



IDIS 330/31
푸르트벵글러 & 바그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IDIS 316
브루크너: 교향곡 7번
크나퍼츠부슈/ 빈필
1949년 잘츠부르크 실황



IDIS 272/73
푸르트벵글러 & 베를린 필
베버, 베토벤, 멘델스존 등



New Releases | 비올라 김성은 찬양앨범 [Secr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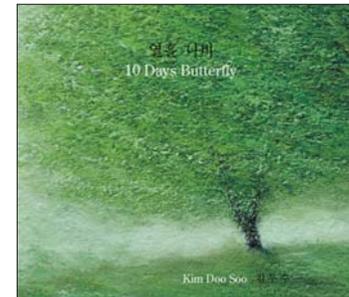


AMC2-088

깊이 있는 비올라의 소리를 담은 연주자

섬세함과 파워를 고루 갖춘 매력적인 비올리스트 김성은이 연주하는 은은하고 포근한 주옥같은 복음성가들...<추천곡>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등 수록.

프로필 귀국과 동시에 국내에 몇 안 되는 명 비올리스트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성은. 그녀는 비올라의 깊이있는 소리와 달았다는 평가와 함께 독주 외에 실내악에서도 한껏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여러 실내악단의 멤버로서, 그리고 독주자, 대학 강사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도미한 김성은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뉴욕 주립대 (Stonybrook) 전역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Nobuko Imai를 사사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립음악원에 재입학하여 그곳에서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동아콩쿨 1위를 비롯하여 세계일보, 음악저널 등 국내 다수의 콩쿨을 석권하였으며, George A. Wedge Prize, New York 5 Town String Competition 등에서 우승하였다. 링컨센터, 암스테르담 바흐홀, 예술의전당 등에서 독주회를, KBS홀 초청 연주회를 가졌고, 코리안심포니, 부천필하모닉, 독일 알고우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그 외에도 줄리어드 퀸텟 멤버로 일본 초청 순회연주, 예술의전당 유망신인 초청연주회, KBS 21C 한국의 음악가 시리즈 비올라 앨범 출판 및 기념음악회, 통영음악제, 금호아트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였으며, 올해 Aulos에서 찬양앨범 3집이 출판되었으며, 내년 KBS에서 플레이오 트리오 음반이 출판될 예정이다. 현재는 바로크 합주단, 금호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올라 비올라 사운드, 가야 현악4중주단, 앙상블 플레이오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상명대, 숙명여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에 출강하고 있다.



PSF 175

김두수 제5집 <열흘 나비> 수록곡 |

01. Deja-entendu
02. 길 없는 시간의 노래
03. 열흘 나비
04. 치자꽃
05. 흰 구름의 길 (방랑부(賦) II)
06. 회우(灰雨)
07. 방황하는 이를 위하여
08. 자유로운 마음
09. 따오기
10. 노란 꽃에 파랑나비 날 때
11. 시대는 전사(戰士)를 거두지 않는다
12. 바람소리

김두수 디스코 그래피 |

- 시오리 길 (1986)
- 약속의 땅 (1988)
- 보헤미안 (1991)
- 자유혼 (2002)
- 열흘 나비 (2007)

공연 실황 |

- 김두수 청개구리 라이브 (2003)

참여 음반 |

- 여행자의 노래 1-4 (2003-2007), 기차 여행 (2006)

영미판 컴필레이션 음반 |

- International Sad Hits (2006) <http://www.20-20-20.com>

한국의 유일한 아트 포크록 가수

한국의 유일한 아트 포크록 가수 김두수! 생애 5번째 신보.

숨이 멎을 만큼 매혹적인 서정성과 탐미적인 실험성이 적절하게 조화롭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에도 적지 않은 애호가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새 음반. 생수를 관조하는 듯한 깊이 있는 보컬과 수준 높은 연주들이 열흘 나비의 날개 치는 소리처럼 신비롭고 감미로운 것이다. 열흘나비, 길 없는 시간의 노래, 회우(灰雨) 등을 무너지게 하는 노래들의 해일(海溢). [강력추천음반!]

열흘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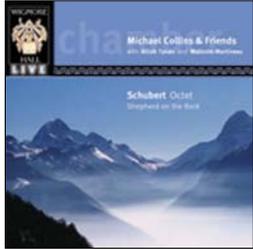
中略.....마지막 날에는 정오의 태양을 향해 한없이 날아오르다가
중국어에는 산산히 부서지면서 빛무리로 산화(散華)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비를 한 번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이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에도 눈길을 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 나비를 보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찾아 다니게 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남은 생을 상상(想像)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친다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열흘나비를 쫓고 있다' 라는 말을 한다
찰나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될 때...

은둔과 침잠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평원으로 날아가는 열흘 나비

한국의 유일무이한 아트 포크록 가수 김두수의 생애 5번째 신보! 그의 노래와 삶을 누구보다 귀히 여겨왔던 일본의 전통 있는 레이블 P.S.F. 레코드에서 제작 발매하여 전세계 배급! 병마와 은둔을 견어내고 귀환한 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서정성과 탐미적인 실험성이 조화된 소품들로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던 4집 [자유혼] 이후, 무려 5년 만의 신보 [열흘 나비]! 보다 원숙하고 다변화된 추상으로 삶의 시원(始原)과 향방을 각출(各出)해내는 한편, 그로테스크한 리듬감은 신산한 세월을 넘어선 궁극의 열락을 살포(洒落) 열어제긴다. 단 한순간도 귀를 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며 격정적이고, 때로는 침잠의 깊이를 가늠할 길 없는 우물에 빠진 듯 처연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울대가 아닌 심장에서 비롯된 음색과 나비의 춤사위인 고난위도 기타 애크립, 흐르는 피톨조차 멈추게 만드는 하모니카, 바람이 머물며 노니는 아코디언과 반도네온, 산새가 앉아 노래하는 피아노, 양철지붕을 뿜뿜는 빗소리의 타악기 까혼(Cajon), 푸른 나무가 일렁대는 첼로 소리, 무엇보다 범상치 않은 노랫말들이 이제 이후로 그대 영혼의 문밖에서 자꾸 서서거리며, 자유와 평화의 유랑을 재촉할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지극히 엄격(嚴潔)한 김두수는, 고결(高潔)의 세월을 같이 견뎌온 낡은 감정모자와 함께 오늘도 인적(人迹) 드문 숲길로 종종 사라져 간다. 그가 여기 노래한 열흘 나비가 앞장을 서며, 너울너울 또 한 번 허공이라도...

* 한국 팬클럽 <http://cafe.daum.net/kimdoosoo/>

화제의 아울로스 수입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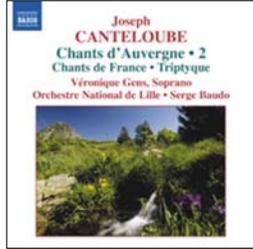
2007년 12월호 Gramophone Editor's Choice

WHLive 0017
슈베르트:
팔중주, 바위 위의 목동
마이클 콜린스와 그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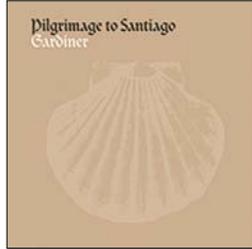
2007년 12월호 Gramophone Editor's Choice

Naxos 8.559315
로렘:
피아노협주곡 2번, 첼로협주곡
사이먼 멀리건(피아노)
웬-신 양(첼로)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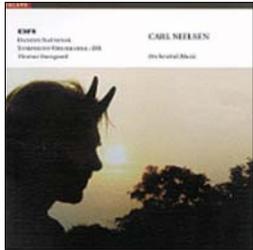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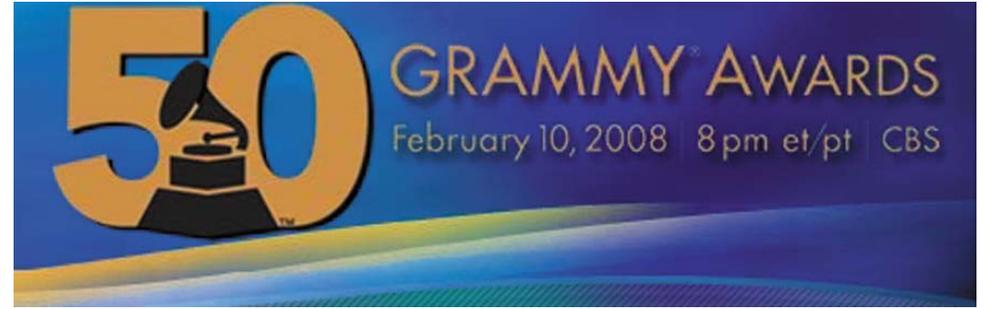
2007년 12월호 Gramophone Editor's Choice

Naxos 8.570338
칸틀루브:
오베르뉴의 노래 2집 외
베로니크 장(소프라노)
세르주 보도
릴 국립교향악단



Gramophone Critics' Choice

SDG701
산티아고로의 순례여행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Gramophone Critics' Choice

Dacapo 6.220518
닐센: 관현악작품집
토마스 다우스고르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Gramophone Critics' Choice

LPO0016-20
엘가:
교향곡 1, 2번, 첼로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수수께끼변주곡 외
버논 핸들리, 애드리안 볼트 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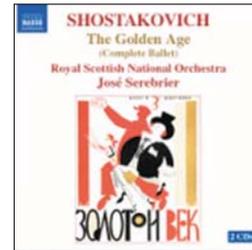
Gramophone Critics' Choice

Naxos 8.570293
바그너-스토코프스키:
관현악 하이라이트
호세 세레브리에르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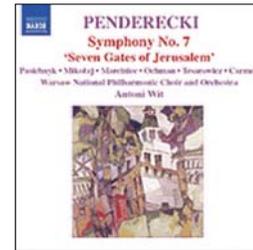
Gramophone 12월호 추천음반

WHLive 0018
이모겐 쿠퍼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8번,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8번,
라벨 거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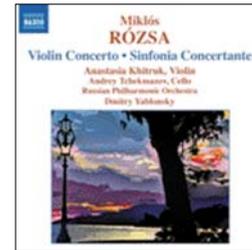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Orchestral Performance

Naxos 8.570217-18
쇼스타코비치: 황금시대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Choral Performance

Naxos 8.557766
펜데레츠키:
교향곡 7번 '예루살렘의 일곱 문'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Instrumental Soloist Performance with Orchestra

Naxos 8.570350
로자: 바이올린협주곡,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아나스타샤 키트루크(바이올린)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안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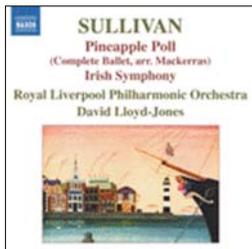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Instrumental Soloist Performance without Orchestra

Naxos 8.570401
20세기 피아노소나타(베르크, 쇤베르크, 하르트만 외)
엘리스 브루스터 프란제티(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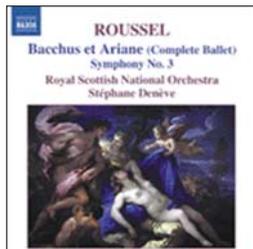
Classicstoday.com Disc of the Month

Naxos 8.557757
블로흐:
바이올린 협주곡, 발썬,
히브리 모음곡
지나 슈프(바이올린)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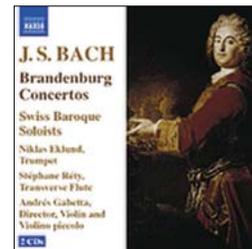
Classicstoday.com Disc of the Month

Naxos 8.570351
설리반:
파인애플 폴, 아이리시 교향곡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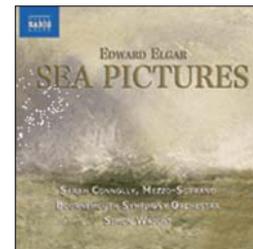
Diapason D'Or

Naxos 8.570245
루셀:
교향곡 3번, 바커스와 아리안느
스태판 드네브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Small Ensemble Performance

Naxos 8.557755-56
JS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전곡
스위스 바로크 솔로이스츠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Classical Vocal Performance

Naxos 8.557710
본윌리엄스: 바다풍경
사라 코넬리(메조소프라노)
사이먼 라이트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GRAMMY Award Nominations: Classical Producer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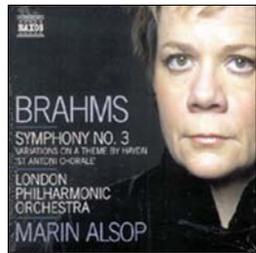
Naxos 8.669014-15
하트케: The Greater Good
여러가수들/ 스텐워드 로버트슨
클리머글래스 오페라



GRAMMY Award Nominations: Best Classical Album, Best Orchestral Performance, Best Contemporary Classical 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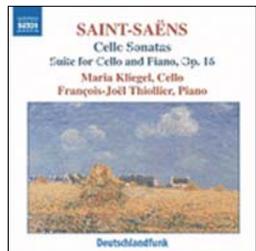
Naxos 8.559328
타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레너드 슬래트킨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Naxos www.naxos.com



Naxos 8.557430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 알스프

대서양 양단을 오가며 음악계의 우연과 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린 알스프, 본마 심포니에 이어서 볼티모어 심포니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성별을 초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님스호프가 자랑하는 간판급 지휘자이기도 하다. 알스프가 진행 중인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교향곡 3번은 일명 브람스의 영웅교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당한 스케일과 화려한 박력이 돋보이지만, 2,3악장에서의 감미로운 선율이 역시도 각별한 작품이다. 작곡가의 인기 편협악의 하나인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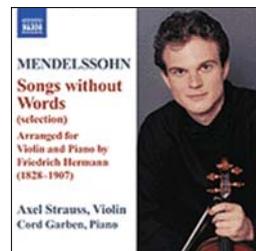
Naxos 8.557880
생상: 첼로소나타 1,2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6
 마리아 클리겔(vc)/
 프랑소와-요엘 티올리에르(pf)

생상의 첼로협주곡 1번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인 반면, 그가 남긴 첼로소나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왔다. 첼로와 피아노의 저음역을 적극 활용하여 격정적인 악상을 펼쳐나가는 소나타 1번은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퇴한 이후에 받은 분노를 표현한 작품. 30년이 지난 이후에 작곡한 소나타 2번



Naxos 8.557251
북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1
 엠마 커크비(소프라노)/ 존 할러웨이 & 만프레드 크레머(바이올린)/ 얀 테르 린덴(비올라 다 캄파)/ 라스 울릭 모르텐센(하프시코드 &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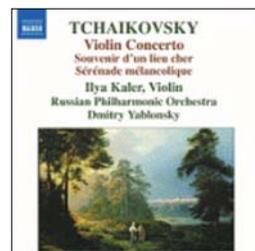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북스테후데 소나타 연작에 이어 홀러웨이/린덴/모르텐센 트리오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불록버스터급 음반. 사발의 든든한 음악동료로 익숙한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드 크레머와 더불어 바로크 소프라노의 대명사라도 같은 이름인 엠마 커크비가 함께 하였다. 아직 미성을 간직하던 시절인 1996년의 녹음으로, 덴마크 다카포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Naxos 8.570213
멘델스존: 무언가 발췌(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악셀 슈트라우스(바이올린)/
 코드 가벤(피아노)

무언가 연작은 멘델스존을 대표하는 피아노작품이다. 간결한 구성과 친근한 선율이 돋보이는 이

들 작품들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편곡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본 음반에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라이프치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헤르만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에서 22곡을 발췌 수록하였다. 1998년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했던 독일의 신예 악셀 슈트라우스와 DG의 명프로듀서이자 지휘자라도 활약했던 코드 가벤이 함께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690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일라 칼러(바이올린)/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이미 파가니니, 이차이 등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통해 님스호프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자리매김한 일라 칼러. 작년 내한공연을 통해 한국 애호가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가 로맨틱 협주곡의 대명사인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도전하였다. 매력적인 소품들인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외에도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바이올린 연작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을 글라주노프의 세련된 관현악 버전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이

Naxos 8.570309
The Art of The Flute (모차르트, 클라우, 풀랑, 생상, 프랑사이)
 볼프강 슈츠 & 마티아스 슈츠(플루트)/ 마도카 이누이(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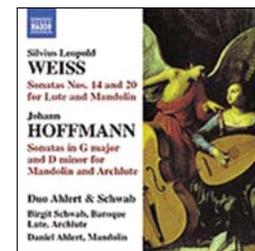
Naxos 8.570232
돌아오라 소렌토로 (트럼본으로 연주하는 이탈리아 노래들)
 조셉 알레시(트럼본)/ 워렌 존스(피아노)/ 줄리어드 트럼본 콰이어 외

조셉 알레시는 뉴욕 필의 수석연주자이자 트럼본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풀리처 상을 수상했던 명연주가. 트럼본의 독특한 비음으로 연주되는 이탈리아 민요와 유명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들이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카페 앙상블, 스윙밴드, 트럼본 합주 등의 반주편성을 활용함으로써 트럼본의 다양한 개성을 돋보이게 배려하였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어떤 갠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돌아오라 소렌토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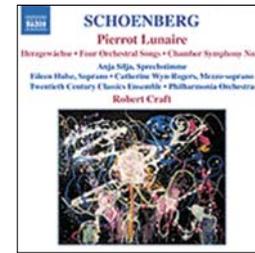
8.570222
타르티니: 5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바이올린)/ 필름 체임버/ 헬무트 필러-브릴

악마의 트릴'로 유명한 타르티니는 코렐리 이후 등장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출신의 이탈리아 작곡가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35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는 빠른 악장들과 우아한 선율미의 느린 악장으로 구성된 그의 협주곡들은 이탈리아 바로크 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1998년 ARD 콩쿠르 입상자이자 현재 필름 음대 교수인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다스칼라키스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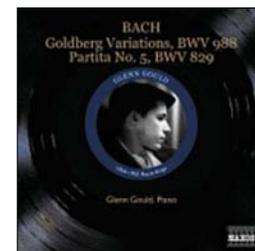
Naxos 8.557716
바이스 & 호프만: 류트와 만돌린을 위한 소나타
 비르기트 슈바르(류트 & 아치류트)/ 다니엘 알레트(만돌린)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레오 폴드 바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류트 연주자의 한 사람이었고, 이보다 한세기 뒤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요한 호프만은 만돌린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았던 음악가였다. 본 음반에서는 바이스의 류트 소나타와 호프만의 만돌린과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각 2곡을 류트(아치류트)와 만돌린이라는 독특한 발현악기 조합으로 연주하였다. 만돌린의 색다른 매력을 맛보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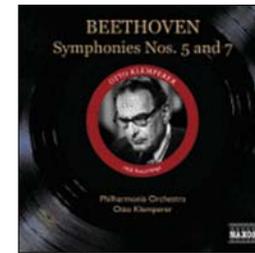
Naxos 8.557523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제임버 심포니 1번 외
 안나 실라(소프라노)/ 캐서린 윈로저스(메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외/ 로버트 크래프트

쇤베르크를 대표하는 성악곡인 '달에 홀린 피에로'는 이전에 없었던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한 무조시대의 걸작으로, 기존의 성악장르의 벽을 허물어버렸던 희대의 문제작이었다. 이때 최고의 루루로 각광받았던 안나 실라는 현대성악곡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여 이 고도의 문제작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에 관한 한 로버트 크래프트의 지휘는 보증서와도 같은 신뢰감을 준다.



8.111247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파르티타 5번 (1954, 55년 녹음)
 글렌 굴드 (피아노)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글렌 굴드의 데뷔 레코딩. 굴드의 최후의 녹음인 1981년의 골드베르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1955년 레코딩은 청년 굴드의 참신한 해석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또 다른 값진 선물이 함께 한다. 바로 1954년 캐나다 CBC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던 파르티타 BWV829번이 그것이다. (원 소스상의 문제로 인해 파르티타 마지막 지그에서 약간의 음 손실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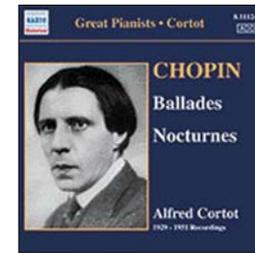
Naxos 8.111248
베토벤: 교향곡 5번, 7번 (1955년 녹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토 클렘페러

수많은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었던 가장 오토 클렘페러. '달에 홀린 피에로'는 이전에 없었던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한 무조시대의 걸작으로, 기존의 성악장르의 벽을 허물어버렸던 희대의 문제작이었다. 이때 최고의 루루로 각광받았던 안나 실라는 현대성악곡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여 이 고도의 문제작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에 관한 한 로버트 크래프트의 지휘는 보증서와도 같은 신뢰감을 준다.



8.111242-43 (2CD)
베르디: 리골레토
 마리아 칼라스, 티토 곱비, 주제페 디 스테파노 외/ 라스칼라 글렌 굴드 (피아노)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글렌 굴드의 데뷔 레코딩. 굴드의 최후의 녹음인 1981년의 골드베르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1955년 레코딩은 청년 굴드의 참신한 해석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또 다른 값진 선물이 함께 한다. 바로 1954년 캐나다 CBC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던 파르티타 BWV829번이 그것이다. (원 소스상의 문제로 인해 파르티타 마지막 지그에서 약간의 음 손실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8.111245
쇼팽: 발라드 1-4번, 야상곡 2, 4, 5, 7, 15, 16번
 알프레드 코르토 (pf)

낙스호의 코르토 78회전반 북각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1929년 녹음인 발라드 전곡과 더불어 1950년 전후에 녹음된 야상곡의 일부를 함께 수록하였다. 발라드는 코르토 특유의 열정과 감성이 잘 묻어나온 연주로, 1933년의 리메이크 녹음에 비해 더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다. 야상곡 2번은 1929년과 1949년의 녹음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세월이 따른 연주자의 시각변화를 체험하게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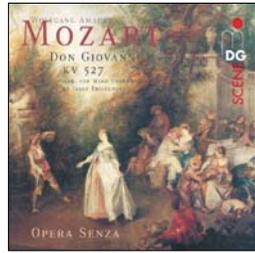
8.111246
바흐: 바이올린협주곡 BWV1042,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4번,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다비트 오이스트라흐(vn)/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유진 오먼디

러시아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를 이제 낙스호 히스토리컬을 통해 만난다. 오이스트라흐의 최정성기였던 1955년 미국에서 남긴 녹음으로 오먼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멘델스존 협주곡은 그가 남긴 두 개의 공식 녹음 중에서 나중의 것으로 오이스트라흐 특유의 아름다운 서정성이 잘 살아난 명연이다. 바흐와 모차르트는 공식녹음을 중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기록들이다.

MD&G www.mdg.de



MDG 643 1454-2
베토벤: 영웅교향곡 (리스 편곡), 피아노 사중주 Op.6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
 실내악으로 만나보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이 걸작 교향곡을 피아노 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함께 수록된 Op.16 역시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를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의 견실한 연주는 편성의 차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큰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MDG 603 1464-2
모차르트: 돈조반니 (윈드앙상블 편곡)
 오페라 센차 윈드앙상블
 오페라 돈조반니는 모차르트의 생전부터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초연직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편곡작품들이 등장하였는데, 본 음반은 18세기말 요제프 트리에벤제가 관악 8중주(각 2대의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와 더블베이스 편성을 위하여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필름소재의 서독일방송(WDR) 교향악단원들로 구성된 오페라 센차 윈드앙상블이 연주를 맡았다.



MDG 321 0339-2
빌라-로보스: 첼로협주곡 2번,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그랜드콘체르토
 울리히 슈미트(첼로)/ 북서독일 필하모니/ 도미니크 로깅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의 거목 빌라-로보스. 그 생전부터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초연직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편곡작품들이 등장하였는데, 본 음반은 18세기말 요제프 트리에벤제가 관악 8중주(각 2대의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와 더블베이스 편성을 위하여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필름소재의 서독일방송(WDR) 교향악단원들로 구성된 오페라 센차 윈드앙상블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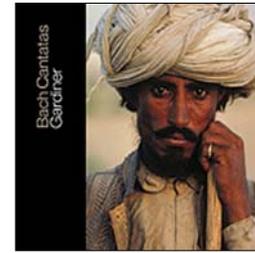


MDG 603 1423-2
오보에 솔로(JS 바흐, 실베스트리니, CPE 바흐, 피아졸라) 관현악 (오보에)
 오보에의 관능적인 비음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음반. 단 한대의 오보에만으로도 이토록 흥미진진한 음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흐 부자가 플루트 솔로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이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을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오보에 솔로를 위한 피아졸라의 탱고-에튀드와 오보에주자 출신의 작곡가 실베스트리니의 여섯 개의 에튀드 역시 단순한 연습곡 이상의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연주자 관현악은 한양대음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원혜 방송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재원. 오보에 연주자들의 필청 음반.

Soli Deo Gloria(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 128
바흐 칸타타 순례 Vol.22 (부활절 기간을 위한 칸타타들)
 앤해럴드 그루피드 존스, 질리안 키스(소프라노)/ 다니엘 테일러(카운터테너)/ 제임스 질크리스트(테너)/ 스티븐 바코(베이스)/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 22집은 2000년 4월 23-25일, 바흐가 태어난 곳인 아이제나흐에서 있었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부활절 기간을 위한 칸타타 6곡을 수록하였다. 공연장소는 바흐가 세례를 받았고 소년 시절 성가대원으로도 활동한 곳인 성 게오르크 교회. 특별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공연만큼 가디너의 지휘와 연주자들이 함창 모두가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아름다움미성의 소프라노 질리안 키스, 캐나다 출신의 일급 카운터테너 다니엘 테일러, 바흐 칸타타 스페셜리스트로 등극한 테너 제임스 질크리스트, 관록의 베이스 스티븐 바코로 이어지는 솔로이스츠의 면면 역시 대단히 화려하다. 바흐 초기 칸타타에 대표적인 걸작인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를 비롯한 여섯 편의 칸타타가 부활절의 기쁨과 감동을 더욱 송고하게 이어줄 것이다.



SDG 131
바흐 칸타타 순례 Vol.23 (부활절 후 1,2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질리안 키스, 캐서린 퍼지(sop)/ 다니엘 테일러, 윌리엄 타워스(att)/ 찰스 다니엘스, 노버트 메인(te)/ 스티븐 바코(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신보의 첫 CD는 2000년 4월 바흐의 첫 부임지였던 아르슈타트의 신교회(Neue Kirche-현재는 바흐 교회)에서의 실황을 담았다. BWV150은 신교회를 위해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흐의 극초기 칸타타이다. 걸출한 코랄 판타지로 시작되는 BWV67은 생기로운 리듬과 약동하는 에너지로 충만한 작품. 두 번째 CD는 2000년 5월 룩셈부르크 에흐터나흐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BWV104는 상송하는 듯한 음조 배열이 인상적이며, BWV112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텍스트를 음악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바흐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



MDG 340 1440-2
슈베르트 : 피아노소나타 D959, 피아노를 위한 출품 모음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피아노)
 Canne Classic Award : Artist of the Year 2007
 2007년 칸느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된 자하리아스의 최신보. 정통 독일 레퍼토리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던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의 장점이 다시금 빛을 발한다. 슈베르트가 사망한 해인 1928년에 완성된 소나타 D959는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로부터 인공된 여러 선율들이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는 흥미로운 작품. 슈베르트가 가곡 못지 않게 피아노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걸작이다.



WHLive 0014
슈라 체르카스키 마지막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
 라모/ 하이든/ 헨데미트/ 쇼팽/ 베클리/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슈라 체르카스키는 낭만거장시대의 향수를 가장 최근까지 간직했었던 걸출한 비르투오조였다. 이 음반은 1993년 10월 마지막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을 담은 것이다. 거장이 즐겨 다루었던 리스트, 쇼팽, 차이코프스키, 하이든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당시 거장의 나이는 84세. 노화에 따른 체력적인 한계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지만, 기교적인 완벽함을 초월하는 노대가의 송고한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HLive 0013
로레인 헌트 리버슨 리사이틀 (피아노반주-로저 비늘)
 말라: 뤼케르트 가곡집/ 헨델: 아리아/ 리버슨: 가곡들 외
 지난 2006년 7월 세상을 떠난 미국 메조 소프라노 로레인 헌트 리버슨의 1998년 리사이틀 음반. 이 걸출한 가수의 때 이른 죽음을 아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따뜻한 음성으로 담담하게 노래하는 말라의 리케르트 가곡집,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헨델의 아리아들, 남편인 리버슨의 현대가곡들에 이르기까지 이 가수의 다재다능함을 실감하게 된다. 앙코르로 노래하는 흑인 영가 '깊은 강'의 감동이 각별하다.

Proprius www.proprius.com



PRSACD 2040
페르골레지 & A. 스카를라티: 스타바트 마테르 (Hybrid-SACD)
 수잔 리덴(소프라노)/ 미카엘 벨리니(카운터테너)/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
 26세로 요절한 작곡가인 페르골레지의 작품은 고금의 여러 '스타바트 마테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걸작이다. 최소한의 편성만으로 지극히 감동적인 음악을 이끌어낸 작곡가의 재능이 놀랍다. 보다 이전 세대 작곡가인 A 스카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역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 스웨덴 출신의 바로크 전문 소프라노 수잔 리덴과 북구를 대표하는 카운터테너 미카엘 벨리니의 청아한 음성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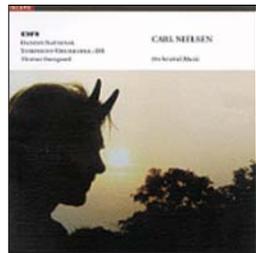
PRSACD 2039
JS 바흐: 오르간 작품과 코랄 (Hybrid-SACD)
 울프 사무엘스(오르간)/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
 요한 함마스트림
 1842년에 건립된 올렘 교회의 오르간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명기로 이름 높다. 이 오르간의 화려하고도 고아한 사운드, 프로프리우스의 뛰어난 녹음, 멀티채널 SACD의 입체음향으로 감상하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이 각별하다. 일부 코랄 전주곡들에는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이 노래하는 오리지널 코랄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송고한 느낌의 종교적인 감동을 들려준다.

LPO www.lpo.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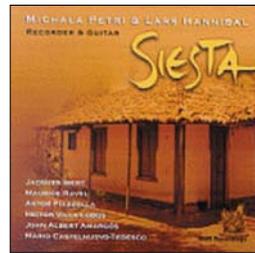
Dacapo www.dacapo-records.dk



LPO-0030
브루크너: 교향곡 7번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4년 5월 10일 런던 로얄 페스티벌홀 콘서트 실황녹음. 라이브에서 특히 뜨겁게 연소하는 텐슈테트의 강력한 파워와 거대한 스케일의 연출을 브루크너의 위대한 교향곡에서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공식음반으로는 최초로 선보이는 텐슈테트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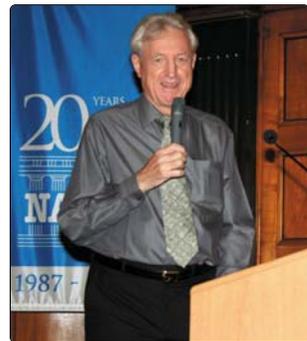


6.220518 (Hybrid-SACD)
닐센 : 관현악작품집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토마스 다우스고르
 그리그, 시벨리우스와 더불어 후기낭만시대의 북유럽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카를 닐센. 6개의 교향곡 외에도 오페라나 극부수음악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소품들이 망라되었다. 두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와 '사울과 다비드'의 삽입곡들 외에도 랩소디 서곡, '판과 시링크스', '헬리오스' 서곡, '큐피드와 시인' 서곡 등등 작곡가의 예리한 감각과 유머,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 등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가득하다.



8.226900
시에스타 (기타와 리코더를 위한 라틴 클래식)
 미칼라 페트리 (recorder) & 라스 한니발 (guitar)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이 들려주는 남국의 정열.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소나티나,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라벨의 허버네라 풍의 소품, 이베르의 막간(Entracte) 등등 라틴 계열 작곡가들의 이국적인 작품들을 리코더와 기타의 청명한 울림으로 표현해내었다. 본 음반은 페트리-한니발 부부가 설립한 독립레이블인 OUR Recordings의 출범을 알리는 뜻 깊은 음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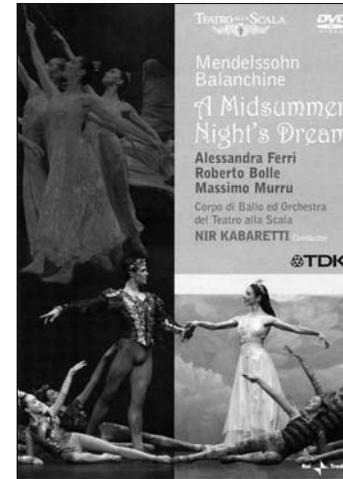
Naxos Celebration - 닉소스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의 닉소스 창립자 클라우스 헤이만 부부



닉소스 창립자 클라우스 헤이만과 부인 타카코 미사자키

TDK mediacreative TDK DVD

www.tdk-music.com



TDK DVD DVWW-BLMD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2007년에 은퇴한 알레산드라 페리의 기념비적 라 스칼라 공연

알레산드라 페리는 카를라 프라치를 이어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 발레리나다. 런던의 로열 발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명성을 얻은 후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로 이적했고 고향 밀라노의 라 스칼라 발레, 프랑스의 마르세유 발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만 44세가 된 2007년에 은퇴한다고 선언하고 6월 23일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본 실황은 이보다 약간 앞선 2007년 2월의 라 스칼라 발레 실황이다. 늘 그랬듯 중년에 접어들어도 옛된 외모와 완벽한 체형은 경탄의 대상이다. 수록된 작품은 조지 발란신의 <한여름 밤의 꿈>. 줄거리 없는 신고전주의 발레를 주로 만든 그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작품인데,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극에 독일의 멘델스존이 곡을 붙이고,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사람이 안무한 것을 이탈리아 무용수들이 춤춘 것이다. 페리의 상대역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가 나섰고, 볼레에 앞서 이탈리아 발레계를 대표한 마시모 무루까지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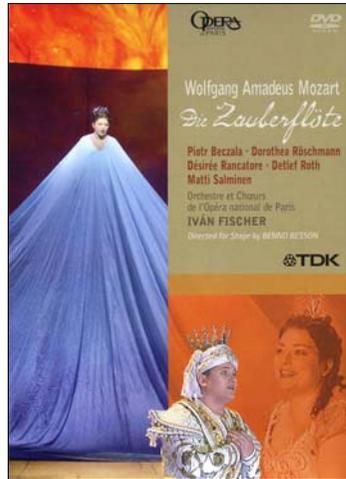
| 보충 자료 |

○ 알레산드라 페리는 1963년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1980년 로잔느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영국의 로열 발레 스쿨에서 공부했으며 곧바로 유명한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의 총애를 받아 그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공연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페리의 춤은 14세 줄리엣의 화신이나 다름없다는 평을 들었으며 2007년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은퇴공연에서도 이 역할을 추유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애착을 갖고 있다. 페리는 케네스 맥밀란이 뉴욕으로 떠난 1985년에 그를 따라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로 옮겼으며 20년 넘게 뉴요커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 고향이자 처음 발레를 배운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주역을 맡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실제로 영상물은 로열 발레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보다 라 스칼라에서 촬영한 것이 많다.

○ <한여름 밤의 꿈>은 조지 발란신의 발레다. 1904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발란신은 혁명기의 조국을 떠나 서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에 정착하여 뉴욕 시티발레단을 창단하고 죽을 때(1983년)까지 이 발레단과 고락을 같이 했다. 그의 발레의 양대 흐름은 신고전주의라는 현대적 스타일과 마리우스 프티파, 차이코프스키의 러시아 황실 발레를 계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여름 밤의 꿈>은 이 주요 흐름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작품이다. 영상물로는 미국의 퍼시픽 웨스트 발레단의 런던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이다.



모차르트: 마술피리



TDK DVD DVWW-OPMFP

브레히트를 계승한 베노 베송이 연출한 동화적 <마술피리>의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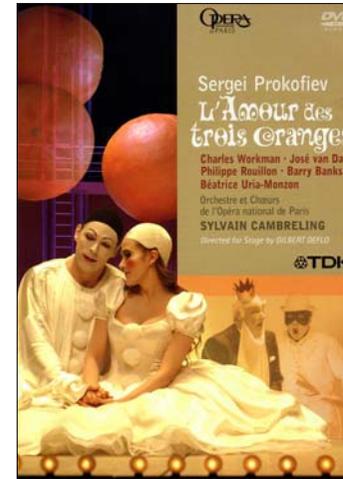
스위스 연출가 베노 베송(1922~2006)은 20세기 연극의 신화적 존재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초청으로 1949년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큰 감화를 받아 아예 근거지를 이곳으로 옮기고 그 유명한 폴크스 뷔네 베를린과 베를린 앙상블을 이끈 거장이 되었다. 그는 파리 오페라의 2000~2001년 시즌을 개막한 <마술피리>를 연출했는데, 본 영상물은 2001년 1월 실황을 담았다. 이 공연 최고의 미덕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베노 베송과 수차례 호흡을 맞춘 스위스의 장-마르크 슈텔레가 꾸민 무대와 의상은 지극히 동화적인데, 특히 그 무대장치가 관객의 찬탄을 자아낼 만큼 기발하게, 자유자재로 변화한다. 예컨대 표지 좌측의 사진은 밤의 여왕의 첫 아리아 장면인데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라든지 노래가 끝나자 날아갈 듯 사라지는 것은 눈부시게 효과적이다. 가수들은 마티 살미넨(사라스트로)을 제외하면 막 떠오르던 젊은 가수들인데 이중 도로테아 뢰쉬만(파미나), 데지레 랑카토레(밤의 여왕), 표트르 베찰라(타미노)는 지금 세계적인 레벨로 성장해 있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헝가리의 이반 피셔가 지휘를 맡았다.

| 보충 자료 |

○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작곡을 마치고 초연한 작품이며 독일의 민속오페라인 '징슈필' 양식하면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음악적 기법을 채용한 작품이다. 이 오페라에는 모차르트가 가입했던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 의미를 펼치는 것은 작곡자의 의도에도 어긋날 것이다. 베노 베송은 동화적인 분위기를 전면 에 내세우고 프리메이슨의 메시지는 이면으로 숨겼다.

○ 본명이 르네-벤자민 베송인 베노 베송은 1922년 스위스에서 태어났다. 배우로 한창 활동하던 1949년(27년) 브레히트의 초청으로 동베를린을 방문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브레히트의 이론에 공감하는 연극인으로서 동베를린의 폴크스뷔네와 베를린 앙상블을 이끌면서 특히 1960년대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것이다. 당시 브레히트의 후계자이자 사무엘 베케트 이후 최고의 극작가로 불린 하인리히 뮐러(1929~1995)와 많은 작업을 함께 했다. 베노 베송의 스위스 고향에 있는 극장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 파미나를 부르는 도로테아 뢰쉬만(1967~)은 현역 최고의 모차르트 소프라노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래 유럽 각지에서 모차르트 오페라의 모든 중요한 리릭 소프라노 역을 소화하고 있다. 우아하기보다는 순진한 인상을 풍기는 그녀만의 고유한 캐릭터도 모차르트 오페라를 해석하는데 있어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TDK DVD DVWW-OPORANG

프로코피에프: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20세기의 <마술피리>로 통하는 프로코피에프 오페라의 결정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였던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가 1921년(30세) 미국 시카고 무대에 올린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은 <투란도트>의 원작자이기도 한 18세기 이탈리아 극작가 카를로 고치의 극을 붙여 오페라로 만든 것이다. 고치의 희곡은 동화적이지만 고도의 풍자를 담은 근대성을 띠고 있으며 프로코피에프는 모더니즘의 침단을 걷는 방식으로 작곡했다. 긴 노래보다는 짧게 자른 대사가 이어지는데 오케스트라의 탁월한 활용으로 난해함을 극복하고 있다. 위대한 오페라 연출가 조지르오 스트렐러를 계승하는 길베르트 데플로가 연출한 이 영상물은 바스티유 극장의 2005년 12월 실황이다. 이탈리아의 전통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정통한 연출자는 신화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초현실적이고 아름다운 동화로 꾸며내어 '20세기의 마술피리'라는 평가가 어울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등장인물이 무척 많은 복잡한단함을 지휘자 실뱅 캄브랭이 잘 풀어냈고, 젊은 유망주부터 원로급인 호세 반 담에 이르기까지 붙어 오페라에 어울리는 출연진이 총집결한 보기 드문 공연이다.

| 보충 자료 |

○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1891~1953)의 미국 망명 시절의 곡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예술계를 휩쓴 모더니즘적 경향을 전면 에 내세운 걸작이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이다. 제재로서는 일단 동화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비아냥과 풍자에 차있어 매우 특이한 감각을 담고 있다. 이 오페라에는 아리아적 부분은 없고 극단적으로 짧게 자른 대사의 주고받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관현악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곡 중에 나오는 유명한 행진곡은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음악 <신데렐라>에 다시 사용된다.

○ 이 오페라에는 실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사랑을 찾아 떠나는 왕자가 중심이다. 우울증에 걸린 왕자는 파타 모르가나라는 마녀가 망신을 당한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이에 화가 난 마녀는 왕자에게 "3개의 오렌지와 사랑을 하라"고 저주를 건다. 오렌지를 찾아 나선 왕자는 무시무시한 괴물 요리사로부터 오렌지를 훔치고 사막을 가로질러 돌아오려고 하나 오렌지가 점점 커지는 바람에 힘에 부친다. 게다가 오렌지마다 공주가 하나씩 나오더니 물을 마시지 못해 죽고 만다. 다행히 마지막 공주 니네타를 살리고 궁전에 돌아오는데, 여전히 음모가 횡횡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마술사 첼리오의 도움으로 난장판을 수습하고 왕자는 니네타와 혼인한다.



Opus Arte DVD

www.opusarte.com



OpusArte DVD OA 0987

로시나: 시금석

스무 살의 로시나와 가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만난 환상적 무대

〈세비아의 이발사〉의 주인공 조아키노 로시나는 열여덟 살부터 걸작을 쏟아내어 이십대 초반에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했다. 주로 단막의 희극을 만들다가 본격적인 대작으로 발전한 것은 1813년(21세)부터로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한해 전에 작곡한 〈시금석〉이다. 로시나의 희극 중 가장 긴 시간 2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시금석〉은 독일에서 인기가 높았다. 제목도 〈사랑 검증(Die Liebesprobe)〉으로 바뀌었다. 독일어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돈 많은 독신 귀족을 둘러싼 세 여인들의 경쟁이 펼쳐진다. 그중 진실한 사랑은 한 사람뿐이다. 2007년에 서울에서 〈리날도〉와 〈라 트라비아타〉를 직접 연출하기도 했던 가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로시나의 고향에서 펼쳐지는 페사로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오랫동안 역임한 로시나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2007년 4월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 실황에서는 페사로 프리덕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 풀장까지 갖춘 부자들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맘껏 제공한다. 로시나 오페라의 모든 악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알베르토 체다가 지휘를 맡았다.

| 보충 자료 |

○ [제1막] 돈이 많은 아스드루발레 백작은 여자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남이다. 그에게 세 여자가 접근한다. 후작 미망인 클라리체, 남작의 영양 아스파지아, 돈나 풀비아이다. 겉으로는 모두 백작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백작은 자신이 조상의 빛 때문에 파산한 양 거짓 정황을 연출하여 여자들의 반응을 보기로 한다. 결국 그림에도 불구하고 백작을 걱정하는 여자는 클라리체임이 밝혀진다.

○ [제2막] 그런데 친구인 조콘도가 클라리체를 사랑하여 열렬히 구애하는 것을 보고는 백작은 다시금 클라리체의 분심을 의심하게 된다. 낙담한 클라리체는 남자 쌍둥이가 찾아와 함께 만나라고 간다는 거짓을 연출하는데, 백작이 거기에 넘어가 클라리체와 이별하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혼동의서를 클라리체에게 보내는데, 클라리체는 남장의 옷을 벗고 백작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Ideale Audience International

Ideale Audience International DVD

www.ideale-audience.com

탄 둔: 차 & 깨진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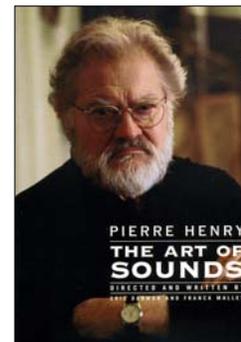


Ideale Audience DVD9DS32

현대 중국 음악을 이끄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

영화 〈와호장룡〉의 음악을 쓴 인물로도 널리 알려진 중국 작곡가 탄 둔의 음악세계를 감동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영상물이다. 그의 오페라 '차'는 일본의 다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오페라다. 동서양의 음악전통이 혼합된 음향세계가 신비스런 다도세계와 어우러져 독특하게 전개된다. 탄 둔은 '색깔을 듣고 소리를 보는' 효과를 얘기하고, 프랑크 셰퍼 감독의 정교한 연출은 작곡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깨진 침묵'은 탄 둔을 포함해 현대 중국음악의 기초를 세운 다섯 명의 작곡가에 대한 초상을 그린 작품이다. 중국, 뉴욕, 파리 그리고 네덜란드를 로케이션 한 이 영상물은 스위스 니용 영화 그랑프리 등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탄 둔과의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다. 176분.

피에르 앙리: 소리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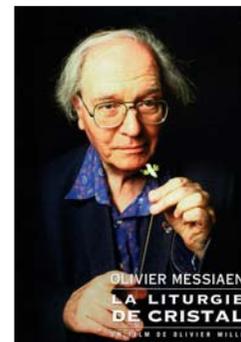


Ideale Audience DVD9DS43

프랑스 구상음악 창작자의 예술세계

1950년대에 피에르 셰페르와 함께 뮌헨 콘크리트(Musique concrete), 즉 구상음악을 창안해 현대음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피에르 앙리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영상물이다. 앙리의 창작세계에서 음악이란 더 이상 악기로 연주하기 위해 악보에다 음표를 그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주위 환경에 있는 소음이나 기계로 변형된 어떤 음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다. 앙리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고독한 사람을 위한 교향곡' 이후 1950년대 내내 구상음악연구회를 발족해서 연구하며 전자음악의 효과를 사용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소리 채집 기구를 들고 돌아다니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장면부터 등장하는데, 곧 그가 하는 실험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음악 연구자에게는 필수영상물이다. 109분.

올리비에 메시앙: 수정체의 전례



Ideale Audience DVD9DS44

2002년 세계 예술 필름 페스티벌 그랑프리 수상작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20세기 현대 음악계에서 아주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가했던 올리비에 메시앙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영상물. 메시앙은 풍부한 자연과 밀착된 삶을 살았고, 엄청난 사상과 지식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다. 탁월한 선생이었고, 매우 영적인 사상가였던 그는 유럽 전통에 기초 위에서 서 있던 음악가이지만, 비유럽적인 요소에 부단히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활동을 했다. 평생 새의 음악을 탐험했던 그의 독특한 음악관과 색채감각을 예민하게 파헤친다. 뭐가 보이느냐는 볼레즈의 질문에 '아니요, 나는 내면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메시앙. 소르본 대학 철학박사인 필름 제작자 올리비에 밀이 메시앙의 내면과 예술세계에 앵글을 쏘았다. 107분.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기돈 크레머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다섯 가지 모차르트 모습들

기돈 크레머 | 크레머라타 발티카

2002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실황.

현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모차르트의 시몬니아 콘체르탄테 K364를 아름답게 들려준다. 독주 비올라의 눈부신 활약을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작품을 크레머와 크레머라타 발티카의 산뜻한 연주로 만나보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바로크 시대의 합주협주곡 양식을 계승한 이 독특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천진한 선율과 아가자기한 악곡구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모차르트가 남긴 협주곡 양식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걸작이다. 시몬니아 콘체르탄테와 세레나타 노투르나 K239이 전통적인 과거의 모차르트를 대변한다면, 아르보 패르트

의 〈Mozart-Adagio〉와 슈니트케의 〈Moz-Art a la Haydn〉은 현대 작곡가들의 손을 통해 재탄생한 이시대의 새로운 모차르트를 상징한다.

두 현대음악계의 대가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통해 표현한 모차르트의 이미지가 신선하기 그지없다.

재치한 점의 패러디작품 〈백 모차르트의 밝은 달밤의 소야곡〉이 선사하는 큰 웃음 또한 함께 나누길 바란다.



기돈 크레머 / 크레머라타 발티카
EuroArts 2072228



표지사진

The Best Album of the 2007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8년 1월호
통권 제 29호 발행 : 2008년 1월 5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